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 연구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이 유 진

#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 연구

# 지도교수 구 본 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이 유 진

이유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유	원 장	(인)
부위	원장	(인)
위	원	(인)

## 국문 초록

문법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언어 표현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언어 자원들을 부려 쓸 수 있는 언어 주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문법 요소는 간접적이고 미묘한 방식으로 담화 생산자의 의도를 드러내기에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의 장에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문법 요소 가운데 특히 피동 표현은 교육적 필요성이 높은 문법 요소로 꼽히고 있다. 피동 표현이 사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선택적으로 드러내는 문법 기제이면서 다양한 담화 기능을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동 표현은 문법 교육 현장에서 긴 기간에 걸쳐 형식 중심으로 가르쳐온 문법 요소로, 과거의 피동 표현 교육의 전통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의미ㆍ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교육이 체계를 갖추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동 표현 교육 역시 학습자의 문법 능력과 국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Ⅱ장에서는 피동 표현의 개념과 유형을 살핀후, 인지 언어학 이론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의사소통 요인에 따라 정리하였다. 또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피동 표현 교육의 문제점과 피동 표현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표현 교육의 교육적 의의를 확보하였다.

Ⅲ장에서는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 내용 마련을 위

하여 실제 학습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140명의 중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가 피동 표현이나 능동 표현을 선택하는 과제에서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을 파악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그 결과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와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는 답변에서 시작하여 피동 표현이 갖는 다양한 파생적인 기능 파악에실패하거나 성공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절반 이상의학습자가 형식이 다른 피동 표현 간의 의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학습자의 피동 표현 이해 정도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인식하고, 탐구하는 교육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적 접근의 방향성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학습자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피동 표현 교육에서의 제시해야 할 탐구 자료나 학습 내용의 위계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Ⅲ장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LEA식 교수·학습 모형에서 도출한 교수·학습의 단계와 의의를 살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학습 활동의 실제와 적용 사례를 보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담화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국면에서 피동표현에 대한 지식을 능동적·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다시 말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문법 교육 내용으로서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피동표현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학습자가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을 파악하는 양상을 관찰하고 분석한 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국어교육, 문법교육, 피동표현, 기능중심, 피동

학 번: 2019-21109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3
2.1.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에 관한 연구	3
2.2. 피동 표현 교육에 관한 연구	5
3. 연구 대상 및 방법	8
Ⅱ. 의미·기능 중심 피동 표현 교육을 위한 전제	12
1. 기존 피동 표현 교육에 대한 검토	12
1.1. 교육과정 분석	12
1.2. 교수자 분석	14
(1) 피동 표현 교수 경험	16
(2)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필요성	18
(3) 피동 표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
1.3. 교과서 검토	21
(1) 교과서 본문	22
(2) 학습활동	27
2. 피동 표현의 개념과 유형	31
2.1. 피동 표현의 개념	31
2.2. 피동 표현의 유형	32
(1) 파생적 피동	33
(2) 통사적 피동	34
(3) 어휘적 피동	36
3.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	38
3.1.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 실현의 이론적 바탕	38

(1) 전경과 배경 이론	38
(2) 동기화 이론	40
3.2.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4
(1) 담화 생산자 요인	45
(2) 담화 수용자 요인	46
(3) 담화 유형 요인	47
(4) 언어 형식 요인	50
4.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의의	51
4.1. 학습자의 언어적 민감성 신장	51
4.2. 학습자의 언어적 자원의 증대	54
Ⅲ. 학습자의 피동 표현 이해 양상 분석 {	56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56
	56
	57
2. 조사 문항의 설정	57
2.1.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기능 파악	59
	61
2.3. 피동 표현 간의 의미·기능 파악	64
3. 학습자의 피동 표현 의미·기능 파악 양상 ·····	66
3.1.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 간의 비교	66
3.1.1. 피동 표현의 기본적 의미·기능에 관한 양상	66
(1) 기본적 의미·기능을 인식하지 못함	66
(2) 기본적 의미·기능을 부적절하게 기술함	67
(3) 기본적 의미·기능을 적절하게 설명함	68
3.1.2. 피동 표현의 파생적 의미·기능에 관한 양상	70
(1) 파생적 의미·기능을 인식하지 못함	70
(2) 파생적 의미·기능을 부적절하게 기술함	71
(3) 직관과 언어적 경험으로 의미·기능을 설명함	71

(4) 분석적 사고로 의미·기능을 설명함	73
3.2. 피동 표현 간의 비교	76
(1) 의미·기능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함	76
(2) 직관과 언어적 경험으로 의미·기능을 기술함	77
(3) 분석적 사고로 의미·기능을 설명함	77
4. 학습자의 피동 표현 선택 과정 분석의 시사점	78
4.1. 피동 표현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	79
4.2.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에 대한 체계적 탐구의 필요성	80
4.3. 피동 표현을 활용한 담화 생산 교육 활동의 필요성 …	81
4.4. 피동 표현 교육 내용의 위계화 가능성	83
Ⅳ. 의미·기능 중심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	85
1. 의미·기능 중심 피동 표현 교육의 목표 ···········	85
2. 의미·기능 중심 피동 표현 교육의 내용 구성 ····	86
2.1. 피동 표현 교육의 내용 구성 방향	86
2.2. 피동 표현 교육의 내용 구성 틀	87
3. 의미·기능 중심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와 적용	89
3.1. 인식 차원에서의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	89
3.2. 이해 차원에서의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	92
3.3. 사용 차원에서의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	97
V. 결론 ·······9	9
참고문헌1	02
Abstract ·······1	Uδ

# 표 목 차

<표 I -1> 연구 내용 및 방법 개요 ·····	9
<표 I -2> 교사 인식 조사 개요 ·····	9
<표 I -3> 실증적 연구 자료 수집 개요 ·····	11
<표Ⅱ-1>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피동 표현 관련	
성취기준	13
<표Ⅱ-2>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피동 표현 관련	
성취기준	13
<표Ⅱ-3>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피동 표현 관련	
성취기준	14
<표Ⅱ-4> 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정보	15
<표Ⅱ-5> 교수 상황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16
<표Ⅱ-6> 의미·기능 중심 피동 표현 교육의 필요성	18
<표Ⅱ-7> 교과서가 다루는 교육 내용의 적합성	19
<표Ⅱ-8> 교과서별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	26
<표Ⅱ-9> 교과서별 피동 표현의 학습활동 내용	28
<표Ⅱ-10> 피동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요인 …	51
<표Ⅲ-1> 탐구 과제 개요	58
<표Ⅲ-2> 과제①의 일부	60
<표Ⅲ-3> 과제②-1의 일부	61
<표Ⅲ-4> 과제②-2의 일부	62
<표Ⅲ-5> 과제②-3의 일부	63
<표Ⅲ-6> 과제③의 일부 ·····	65
<표Ⅳ-1>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목표 ····	86

# 그 림 목 차

<그림Ⅱ-1>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피동 표현 관련 본문①	22
<그림Ⅱ-2>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피동 표현 관련 본문②	23
<그림Ⅱ-3>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피동 표현 관련 본문③	24
<그림Ⅱ-4>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피동 표현 관련 본문④	25
<그림Ⅱ-5>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피동 표현 관련 학습활동①	29
<그림Ⅱ-6>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피동 표현 관련 학습활동②	29
<그림Ⅱ-7>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피동 표현 관런 학습활동③	30
<그림Ⅱ-8> 능동 표현 모형	40
<그림Ⅱ-9> 피동 표현 모형	40
<그림Ⅱ-10> 의미에 의한 동기화	41
<그림Ⅱ-11> 형태에 의한 동기화	42
<그림Ⅱ-12> 의사소통 모형	44
<그림IV-1> LEA식 탐구 활동의 예시①	88
<그림IV-2> LEA식 탐구 활동의 예시②	88
<그림IV-3> Andrews(2006)에서 도출한 공통단계	89
<그림IV-4> 인식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①	90
<그림IV-5> 인식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② ·····	91

<그림I	W-6>	이해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①-1 …	•••••	92
<그림]	W-7>	이 해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①-2 …		93
<그림]	W-8>	이해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②-1		94
<그림]	W-9>	이해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②-2		95
<그림]	W−10>	이해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③ …	•••••	95
<그림]	W-11>	이해	차원의	학습활동	적용 예시	•••••	96
<그림]	W-12>	사용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①-1		97
<그림[	W-13>	사용	차워의	학습활동	예시①-2		98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어 주체는 다양한 표현을 동원하여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문법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성공적인 언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즉 언어 표현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자신이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언어 자원들을 부려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나 문법 요소들은 상당히 간접적이고 미묘하게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기에(남가영, 2009:317)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 교육의 장에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양한 문법 요소들 가운데 특히 피동 표현은 실제 의사소통에서 매우 빈번하게 출현하며, 교육적 필요성이 높은 문법 요소로 꼽히고있다. 문법 요소는 능숙한 화자들이 자신을 어떤 식으로 드러낼지,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적절하게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박민신, 2019:123) 하는데, 바로 피동 표현이 동일한 사태를 피동으로 표현하는지 능동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사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선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문법 기제이면서, 다양한 담화 기능을 지니는 유용한문법 요소(윤현애, 2011:1)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7 교육과정에서부터 피동 표현에 대한 기능 중심 접근이 이루어져 왔고, 2015 교육과정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더 강화(강보선, 2020:34)되어 왔다.

그러나 피동 표현은 문법 교육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식 중심으로 가르쳐온 문법 요소로, 학습자들이 접하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학습자들의 언어생활에서 피동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에 주목하거나, 피동 표현을 효과적이며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을 다루기보다는, 과거의 교육 전통이 오늘날의 피동 표현 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강보선, 2020:7) 있다. 교육과정의 구체태이면서 교육 현장에서 주된 교수한학습 자료로 쓰이는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단순히

변형하는 학습 활동이 강조된다거나 피동 표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학습 활동은 드문 사례와 같이, 결과적으로 실제교수학습 현장의 피동 표현 교육은 변화한 문법 교육적 관점과 교육과정의 방향에 걸맞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현직 교사와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현행 피동 표현 교육의 한계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 【T-4】 모국어 사용자에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어보는 활동이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음. 따라서 문장 구조에 집착하지 말고 피동문만이 가지는 의미 차이를 화용론적 관점에서 다루는 비중이 더 커져야 한다고 봄.
- 【T-17】 교과서 자체가 피동 표현의 개념이나 피동 표현을 만드는 문법적 요소와 같이 단순한 문법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대해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것 등 실제적인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본 연구는 의미·기능 중심 피동 표현 교육이 문법 교육 현장에서 보다 비중있게, 체계를 갖추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피동 표현의 사용이 '담화 생산자의 특정한 의도를 반영한 선택'이라는 관점 아래, 인지 언어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피동 표현이 담화 생산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아가 담화의 이해와 생산의 국면에서 피동 표현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고려하여 피동 표현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피동 표현 교육 실태를 반성적으로 검토하여, 제안하

고자 하는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의의를 밝힐 것이다. 또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학습자가 피동 표현이나 능동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을 파악하는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 내용과 실제를 구안할 것이다. 이상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기존의 피동 표현 교육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의의를 밝힌다.
- 둘째, 학습자가 피동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학습자의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 파악 양상을 통해 피동 표현 교육에 참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셋째, 피동 표현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교수·학습의 장면에서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와 적용 사례를 보인다.

#### 2. 선행 연구

#### 2.1.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에 관한 연구

피동 표현 연구는 형식에 대한 논의에 치중하여, 주로 통사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으나 최근에는 피동 표현의 의미·화용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에 관해 축적된 연구로는 이익섭·임홍빈(1983), 송현정(1994), 고영근·구본관(2009), 윤현애(2011), 김원경(2012), 김병건(2012), 서민정(2018)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이익섭·임홍빈(1983)에서는 피동문의 사용 맥락을 검토하며 피동의 쓰임과 의미를 다루었다. 다섯 가지의 피동 표현 사용 맥락을 통하여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를 제시<sup>1)</sup>하였는데, 특히 피동 표현이 갖는

정서적 요소를 들어, 공손성과 관련된 담화적 의미에 관한 설명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송현정(1994)는 일찍이 피동문을 의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피동의 범주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피동문은 '선택'이며 화자의 '의도'에 의한 초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피동문이 사용되는 표현 가치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출발점이 같다. 고영근·구본관(2009)에서는 피동문은 피동작주에 초점이 가게되기 때문에 탈동작성을 지니며 상황 의존성을 지니기에, 실제 문장에서 능동 표현과 차이 나는 몇 가지 기능, 즉 동작주를 숨긴다거나 객관성을 높이는 기능이 두드러진다고 논한 바 있다. 의미·기능 중심 피동 표현교육에 대한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을 구성하는 데 참조가 되었다.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에 관해서는 윤현애(2011)의 연구도 주목할만하다. 윤현애(2011)에서는 구어 장르에 출현한 피동 표현의 빈도를 바탕으로 하여 피동 표현이 지닐 수 있는 담화 기능을 도출하였다는 의의가 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윤현애(2011)에서 양적 비교를 통해 도출한, 한국어에서 피동 표현은 공식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며 정보 제공 담화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출현한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 참조가 되었다. 다만, 윤현애(2011)은 질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며, 구어만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김원경(2012)은 피동 표현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형식적 요 건이 아니라 의미적인 요건으로 보는 데에서 출발하여, 어떤 의미적인 요건이 피동 범주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동을 표현하는 문장의 성분들이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하는지를

<sup>1)</sup> 국어 피동문의 다섯 가지 사용 맥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능동의 주어가 불분명하거나 쉽게 기술될 수 없을 때

② 능동 주어가 문맥에서 자명할 때

③ 정서적인 이유 등으로 1인칭과 같은 능동 주어를 특별히 내세우려 하지 않을 때

④ 두 문장의 연결을 쉽게 하려고 할 때

⑤ 비행동성 내지 탈행동성 혹은 상황 의존성을 나타낼 때

의미 자질 표시를 통해 형식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김병건(2016)는 윤현애(2011)와 마찬가지로 구어 담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을 살피고자 하였다.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말뭉치 중 '일상대화'에서 피동 구문을 추출하여, 어휘적 피동 표현의 의미 기능을 '담화의 중심 화제 유지하기'와 '대인 관계에서의 공손과 부담 줄이기'로 정리하였다. 물론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 방법은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교육내용을 보강할 수 있었다.

서민정(2018)에서는 한국어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에 주목하여, 피동 표현의 기능과 사용 양상을 살폈다는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이 연구에서는 15, 16세기에 비하여 현대 한국어에서 피동 표현이 증가한 이유를 밝히는데, 먼저 말하는 이가 설명하고자 하는 피동주가 증가했고, 말하는 이가 행동주를 모르거나, 행동주를 밝히고 싶지 않은 상황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피동 표현의 기능과 사용을 시대의 변화 및 현대 사회의 특징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피동 표현의 의미나 기능을 다루었던 기존 논의들과 차별성이 있었다.

#### 2.2. 피동 표현 교육에 관한 연구

피동 표현 교육에 관한 연구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현진(2002)는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살펴 피동 표현의 교수 내용을 검토하고 제안하였기에 본 연구와 맥이 닿아있다. 이현진(2002)에서의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 즉 피동 표현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청자의 공감을 유발하거나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는 내용이 본 연구의 큰 참조가 되었다. 단, 주된 연구 내용이 한국어 교재 검토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유영홍(2006)은 학습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교재 내용을 구성하고, 지도 방안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정은 (2009) 역시 학습자가 피동 표현을 사용하며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피동 표현의 지도 방안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구인만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연구의 내용이 중국인 학습자의 피동 표현 오류 유형과 그러한 오류를 생성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므로 본 연구와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김용(2008)에서도 한국어와 중국어의 피동 표현을 대조 분석하여 피동 표현의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주로 형식적 측면에서 피동 표현의 교수학습을 다루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역시 한국어 교육의 논의이기는 하나, 이수나(2018)은 담화·화용적인 차원에서 피동 표현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피동 표현 교육을 적용하고자 하였기에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 연구 역시 중국어 모어 학습자를 학습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도 주로 중국어 표현과의 비교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남경영(2019)도 담화 기능을 초점으로 피동 표현의 발화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피동 표현의 담화 기능 교육이 필요함을 밝히고, 이에 따른 교육 방향을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흐름을 같이 하나, 이 연구 역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다루면서 각종 한국어 교재를 비교·검토하고,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 활동에서 드러나는 피동 표현의 오류를 분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에, 본 연구와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이외에도 이효숙(2004)은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피동 표현 교육 연구에 해당하여 한일 피동 표현을 대조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어의 피동과 사동의 유사한 형태에서 발생하는 혼동에 주목하여, 이를 초점화한 피동 표현의 교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윈시투흐엉(2008)은 피동법 사용과 관련하여 베트남어와의 대조 연구를 수행하여, 베트남어권 학습장게 어려울 수 있는 학습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사마와디(2011)은 태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사례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태국어권 학습자를 위하여 두 언어 간 피동 표현을 대조 분석하고, 한국 어 피동 표현의 교수 학습 내용을 형태적 특징, 통사적 특징, 의미적 특 징으로 나누어 이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 학습을 제안하였다.

한편, 국어 교육에서의 연구에 해당하는 박민진(2004)과 한가연(2015)은 공통적으로 형태 위주로 교육되고 있는 피동 표현 교육을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피동 표현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 다만, 그를 위한 피동 표현 교육 방법으로 텍스트 기반 피동 표현 교육을 제안하여그 효과를 증명하는 등 본 연구와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정병철(2016)에서는 동기화 이론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의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동기화된 특성이 드러나는 문법 요소로 피동 표현을 바라보는 인지 언어학적 이론과 관점을 본 연구를 구성하는 바탕으로 삼았다. 또한 정병철(2016)에서는 현재의 피동 표현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각각의 피동 표현 구성이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탐구하고 활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의미ㆍ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을 구안하는 데 큰 참조점이 되었다. 다만, 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마련함에 있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본 연구와 차별점으로 삼을 수 있다.

연주형(2019) 역시 피동 표현 교육의 담화·의미적 특성에 관한 논의를 문법 교육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논지를 같이한다. 다만, 피동의 범주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여 피동의 범위를 한정하고, 피동 표현의 통사적 특성에 관한 교수·학습 내용을 꼽는 등의 내용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의 차이점이 있다.

박민신(2019)은 피동의 개념을 정의 내리고, 범주화하는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가르칠 지식'으로서 구안된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에서 지식의 파손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 검토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재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 내용의 적

절성을 검토하였다. 다만 피동 표현의 교육 내용의 적절성 검토가 교재라는 1차적 교수학적 변환의 결과에 머물러 후속 연구가 요구되며, 본연구와는 논의의 초점에서 차이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또 다른 피동 표현 교육 연구로는 강보선(2020)이 대표적이다. 강보선(2020)은 2015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 내용으로 적절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피동 표현 교육 내용을 기능 중심으로 설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강보선(2020)의 분석 대상은 12종의 국어 교과서가 가장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피동 표현의 표현 효과를 인식하고, 그 의미와 기능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기여하는 피동 표현 교육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 −1> 연구 내용 및 방법 개요

논문 체계	하위 연구 내용	연구 자료 및 방법
Ⅱ. 연구의	• 피동 표현의 개념과 유형 •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	• 문헌 연구 • 텍스트 분석
전제	• 기존 피동 표현 교육에 대한 반성적 검토	<ul><li>교육과정 검토</li><li>교수자 조사</li><li>교과서 분석</li></ul>
Ⅲ. 피동 표현 의미·기능 파악 양상	조사 문항의 설정      의미·기능 파악 양상에  따른 학습자 유형화	<ul><li>문헌 연구</li><li>학습자 질문지 분석</li><li>사후 인터뷰 분석</li></ul>
IV. 교육 내용 설계	<ul><li>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목표 정립</li><li>피동 표현 교육의 내용 구성 마련 및 실제 제시</li></ul>	• 문헌 연구 • Ⅱ장의 조사 결과 • Ⅲ장의 분석 결과

본 연구의 필요성은 현행 피동 표현 교육에 대한 검토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먼저 Ⅱ장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피동 표현 교육의 실태를 교사 인식 조사와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교사 인식 조사는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모두 활용하고자, 질문지 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피동 표현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피동 표현 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표 Ⅰ-2> 교사 인식 조사 개요

조사 시기	대상	방법	자료번호	
2020.3.	중고등학교 교사 12명	질문지		
	질문지 응답자 중 6명	인터뷰	T-일련번호	
2020.4.	중고등학교 교사 8명	질문지	-글인인오 	
	질문지 응답자 중 4명	인터뷰		

또한 Ⅱ장에서는 인지 언어학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해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이 발현되는 기제를 살피고,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이 의사소통 요인의 영향을 받아 선택되는 것으로 보아 의사소통 요인에 따라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Ⅱ장의 검토를 바탕으로 과제 문항을 제작하여 학습자들이 피동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sup>2)</sup>에서 나타나는 피동 표현의 의 미·기능 파악 양상을 조사하였다. 이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자들 을 유형화한 후 이에 따른 교육적 접근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Ⅲ장의 학습자 조사 및 분석 결과와 이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를 구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피동 표현 교육의 목표를 정립하였고,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의 틀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학습활동의 실제와 적용 사례를 보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연구 방법과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sup>2)</sup> 과제 문항은 학습자들이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비교하여 하나의 표현을 선택하거나, 형식이 다른 피동 표현을 비교하여 하나의 표현을 선택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선택항으로 제시된 각 표현들의 의미 차이가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 는지, 왜 그 표현을 선택하였는지 이유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표 | -3> 실증적 연구 자료 수집 개요

조사 시기	목표	대상	방법	자료번호
2020년 3월~4월	현행 피동 표현 교육 실태 조사	중고등학교 교사 20명	질문지 및 인터뷰	T-일련번호
2020년		D 중학교 2학년 68명	질문지	D-일련번호
6월~7월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	D 중학교 2학년 8명	인터뷰	
2020년	파악 및 선택 양상 조사	N 중학교 2학년 72명	질문지	N 이러비호
9월~10 월		N 중학교 2학년 8명	인터뷰	N-일련번호
2020년 12월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 적용	S 중학교 3학년 6명	줌 소회의, 수업 활동지	S-일련번호

# Ⅱ.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을 위한 전제

### 1. 기존 피동 표현 교육에 대한 검토

본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는 기존 피동 표현 교육에 대한 검토로부터 확보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반성적인 시각에서 기존 피동 표현 교육의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현재 피동 표현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적 문제 상황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논지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 1.1. 교육과정 분석

피동 표현은 학교 문법의 통일 이후 4차 교육과정부터 2015 교육과정 까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특히 교육과정에서 피동 표현 교육에 대한 관점은 7차 교육과정에서 2007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부터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강보선, 2020: 9).

우선 7차 교육과정(교육부, 1997)의 경우 "피동 표현이 무엇인지 알기, 피동 표현의 종류와 문장에서의 역할, 피동 표현의 쓰임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를 주요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형식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을 지향(강보선, 2020: 11)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2007 교육과정부터는 피동 표현에 대한 기능 중심의 접근을 살펴볼 수 있다. 2007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의 성취 기준해설에서는 "능동과 피동이 갖는 의미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지 등의 근본적인 물음을 탐구해 볼 수 있다." 와 같이 담화 상황에서의 피동 표현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 7학년의 성취기준에 대한 내용 요소의 예로는

"사동·피동 표현에 따라 의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기", "사동·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심리적·사회적 특성 이해하기"를 들고 있으며, 10학년의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은 "부정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등은 특히 사태를 해석하는 화자의 관점과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본 연구가 취하고 있는 인지 언어학적 관점과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Ⅱ-1>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피동 표현 관련 성취기준

영역	성취기준		
7학년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7-문법-(4)]	안다.		
10학년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10-문법-(3)]	경면에 따는 표면 당박들 안나.		

'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으로의 변화된 관점과 인식은 2011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에서도 이어진다. 먼저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의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피동 표현이 사용되는 양상을 이해하고 독서와 관련지어 그것들이 문장과 글 전체에 미치는 표현의 효과를 탐구하도록 한다."에서처럼 계속해서 피동 표현의 표현 효과, 즉 기능에 대한 탐구를 강조하고 있다.

<표 II-2>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피동 표현 관련 성취기준

영역	성취기준		
중1-3학년군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문법 (9)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독서와 문법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문법 요소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문장 (12)	탐구한다.		

<표 | -3>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피동 표현 관련 성취기준

영역	성취기준		
10학년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10국04-03]	문법 효고의 극성을 담下하고 성용에 갖게 사용한다.		
언어와 매체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실제		
[12언매02-06]	국어 생활에 활용한다.		

또한 2015 교육과정(교육부, 2015) 성취기준 해설에서 피동 표현을 "형식적인 특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하여 원활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했다고 명시함으로써 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sup>. 이처럼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피동 표현 교육은 형식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어 왔으며, 이는 문법 교육학계의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1.2. 교수자 분석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피동 표현 교육에 대한 접근이 기능 중심으로 바뀌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피동 표현 교육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실 행하는 주체인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교사들의 교직 경력은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32년으로 다양했고, 평균 교직 경력은 약 8년이었다.

<sup>3)</sup> 다만 이처럼 실제 활용과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기준 해설에서 피동 표현과 관련해서는 특정 국어 자료 유형인 기사문과 연관 지어 특정한 의미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피동 표현의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다루면서 국어 사용의 실제적인 측면을 온전하게 반영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표 | 1-4 > 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정보

교사 일련 번호	교직 경력(년)
T-1	고등학교 3년
T-2	중학교 4년
T-3	중학교 4년
T-4	고등학교 3년
T-5	중학교 14년
T-6	중학교 32년
T-7	중학교 1년, 고등학교 1년
T-8	중학교 11년
T-9	고등학교 2년
T-10	고등학교 2년
T-11	고등학교 5년
T-12	중학교 17년
T-13	중학교 6년
T-14	고등학교 3년
T-15	중학교 19년
T-16	중학교 3년
T-17	중학교 5년, 고등학교 1년
T-18	중학교 4년
T-19	고등학교 6년
T-20	고등학교 9년

피동 표현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는 질문지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행하였다. 각 문항은 크게 '피동 표현 교수 경험', '피동 표현 교육의 문제점', '피동 표현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묻는 내용으로 제작되었다. 아래에서는 조사의 응답 결과를 살펴본다.

#### (1) 피동 표현 교수 경험

1번 문항에서는 "피동 표현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물음을 통해 피동 표현 교수 경험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동 표현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교사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피동 표현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 교사는 없었다.

2번 문항에서는 피동 표현을 가르쳤을 때 주로 활용했던 교수·학습 자료를 파악함으로써 피동 표현 교수·학습 상황의 구체적인 일면을 살 피고자 하였다.

<표 | -5> 교수 상황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질문	피동 표현을 가르칠 때 주로 활용하는 교수 학습 자료의 유형은			
2	무엇입니까?			
응답 응답자 수 비율				
1	교과서	14명	55%	
2	문제집	3명	45%	
3	자체 제작 교재	3명	0%	
	계	20명	100%	

인터뷰 결과,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대개, 주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피동 표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동 표현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서 분석 역시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과서 분석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로는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가르친다는 교사와 진행한 인터뷰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아래와 같은 인터뷰 결과,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T-2】 교과서의 예문으로 피동 표현을 가르치기에는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안 든다. 예문 자체의 가짓수가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고. 가르치고 싶은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문은 단순한 것, 대표적인 것 몇 가지여서.

교사 T-2의 경우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피동 표현을 가르치고자 하나, 교과서의 예문이 단순하고 대표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학습자가 경험하는 실제 언어생활과 맞닿으며, 그들의 언어생활에서 피동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보다 다양한 상황과 예문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번 문항에서는 피동 표현 교수 경험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피동 표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살피고자 하였다. 2번 문항과 관련하여 현재의 피동 표현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예문과 피동 표현 만들기 연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피동의 개념과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과 같은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답변이 다수 보였다. 대표적인 응답 결과를 추리면 아래와 같다.

- 【T-16】 피동의 개념, 피동이 만들어지는 원리, 단형 피동과 장형 피동의 종류와 같이 개념과 절차적인 부분을 교과서 예문 위주로 가르친다.
- 【T-19】 대응되는 능동 표현을 통해서 피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피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를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만드는 것을 주로 가르친다.

#### (2) 의미ㆍ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필요성

4번 문항에서는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관점과 교육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피동 표현이 필자의 의도와 전략에 따라 선택되기도 한다는 점을 가 르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과 "피동 표현의 담화적 의미가 기능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작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답변하게 하였다.

<표Ⅱ-6>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필요성

질문	피동 표현이 필자의 의도와 전략에 따라 선택되기도 한다는 점을
4-1	가르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자 수	비율
1	매우 필요하다	11명	55%
2	대체로 필요하다	9명	45%
3	보통이다	0명	0%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0명	0%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0명	0%
 계		20명	100%

**질문** 피동 표현의 담화적 의미나 기능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4–2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응답		응답자 수	비율
1	매우 필요하다	13명	65%
2	대체로 필요하다	7명	35%
3	보통이다	0명	0%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0명	0%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0명	0%
계		20명	100%

이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모두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로써 학교 현장에서도 의미·기능 중심 의 피동 표현 교육의 필요성과 관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 -7> 교과서가 다루는 교육 내용의 적합성

질문 4-3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기에 교과서에 기술된 피동 표현 교육의 내용은 얼마나 적합합니까?			
응답 응답자 수 비율				
1	매우 적합하다	0명	0%	
2	대체로 적합하다	3명	15%	
3	보통이다	12명	60%	
4	별로 적합하지 않다	5명	25%	
5	전혀 적합하지 않다	0명	0%	
계 20명 10			100%	

교과서가 다루는 교육 내용의 적합성에 관해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체로 적합하다'는 의견에 비해 약간 많았다.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서의 어떤 점이 적절한 피동 표현 교육 내용에 부합하는지, 교과서의 어떤 점이 피동 표현 교육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교과서에 기술된 피동 표현 교육의 내용이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교사를 대상으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그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T-4】 모국어 사용자에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능동문과 피동문을 서로 바꾸어보는 활동이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모르

### 겠음. 따라서 <u>문장 구조에 집착하지 말고 화용론적 관점</u> 에서 다루는 비중이 더 커져야 한다고 봄.

교사 T-4의 경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교과서의 학습활동의 교육적 의미와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형태·통사적 측면을 강조하여 피동 표현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화용론적 측면에서 피동 표현 교육에 접근해야한다는 인식이 본 연구와 논지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피동 표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본 문항에서는 교사가 생각하는 피동 표현 교육의 문제점이나 바람직한 피동 표현 교육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함으로써, 피동 표현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T-17】 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대해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것 등 <u>실제적인 문법적 표현의 활용 기능을 향상</u> 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 【T-18】 주어진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드는 것이나 피동과 사동을 구분해 내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피동 표현이 필요한 지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위 답변에서 살필 수 있듯, 피동 표현 교육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피동 표현 교육은 실제와 유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의견이나,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학생

들의 흥미나 학습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 【T-3】 이중 피동과 같이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들에 대해서 잘못된 표현으로 규정지어 국어 생활의 실제와 유리된 점 이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보다 열린 관점에서 접근하고 실제 국어 생활을 반영해야 한다.
- 【T-11】 수능특강에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르치기에 바빠, 학생들은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동 표현을 배운다. 피동 표현을 배우면 의사소통에 좋은 점 등을 알게 해서 흥미를 가지게 해줘야 한다.

마지막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피동 표현 교육 내용 마련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반영하고, 학생들이 배우는 피동 표현에 관한 문법 지식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3. 교과서 검토

앞서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피동 표현 교육이 수업의 형태로 구체화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수·학습 자료는 교과서로 파악4)되었다. 더욱이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하고 교육 내용을 표상하는 구체적 실체(남가영, 2012:1)로, 교과서를 살핌으로써 교육의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이 접하는 피동 표현의 교수·학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과서를 구체적으로

<sup>4)</sup> 남가영(2012)에서도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환 의도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서 여타의 교육 자료와 다른 지위를 지니며, 교수·학습을 이끌고 가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검토하고자 한다.

전술한 교육과정 분석에 따르면 2015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개발된 교 과서의 내용은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나, 교과서 분석 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항에서는 교과서 본문과 학습 활동 두 측면으로 나누어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검토 하고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 (1) 교과서 본문

(농동문) <u>사냥꾼이 토끼를</u> 잡았다. (피동문) <mark>토끼가</mark> 사냥꾼에게 잡혔다.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문장 성분이 바뀐다. 위와 같이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이때 피동문의 부사어에는 '에게/에'가 주로 사용되고 '에 의해(서)'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림॥-1> 2015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피동 표현 관련 본문 ①

위 그림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피동 표현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림과 같이 피동문을 설명할때,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점이 교과서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촘스키(Chomsky)의 변형생성문법이 사용한 방식을 그대로 옮긴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이와 같은 교과서 본문의 설명 방식은 피동 표현이 능동 표현의 단순한 변형으로 도출된다는 암시로 작용하여 실제 언어 현상을 극도로 단순화하거나 왜곡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정병철, 2016:166)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본문 기술을 통해서 2015 교과서에서는 피동 표현 교육 내용으로 피동문 변형에 관련된 형태적·통사적 변화를 아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찍이 주세형(2005)에서 이러한 교과서의 기술이 학습자가 피동 표현이 구성하는 '의미'보다는 '형태' 자체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요컨대 위와 같은 교과서 본문의 기술은 형식 중심 피동 표현 교육에 어울리므로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교과서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아래 그림과 같이 피동 표현이 실현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교과서에서는 공통적으로 피동 접사에 의한 피동, '-어지다', '게 되다'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피동 표현의 유형과 범주를 설명하고 있었다.

피동문이 실현되는 방법 중 하나는 피동사에 의한 것이다. 피동사는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또한 피 동문은 '-되다', '-어지다', '-게 되다'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한다. (가)는 접미사 '-리-'와 '-이-'가 결합된 피동사가 쓰인 피동문이고, (나)는 '-어지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동문이다.

<그림॥-2>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피동 표현 관련 본문②

그러나 위의 서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구성들 하나하나의 의미와 기능,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는 없었다. 교육과정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이를 실제 국어 생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정병철, 2016:168), 교과서의 설명은 학생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피동 표현보다 상세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피동 구성 역시 어떤 의미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실제 사용에서 어떤 의미 차이가 나타나며, 어떤 효과를 위해 쓰이는지

설명하거나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음에서 제시할 교과서 본문과 같이 피동 표현을 다룰 때 능동 표현과 비교하여 그 의미와 초점의 측면에서 피동 표현을 설명하는 교과 서도 있었다. 이는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을 실현하는 데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는 경우로 보인다.





제힘으로 움직이는 행위의 주체가 주어인 문장을 능동문이라 한다. 이와 달리 피동문은 행위의 주체가 아닌 행위의 대상이 주어가 된다. 위의 만화에 서 '내가 오늘 붕어빵을 백 개나 팔았어.'라는 문장은 파는 주체이자 주어인 '나'에 초점을 둔 능동문이다. 한편 '오늘 붕어빵이 백 개나 팔렸어.'라는 문장 은 파는 대상인 '붕어빵'에 초점을 두어 표현한 피동문이다.

<그림॥-3>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피동 표현 관련 본문③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동 표현이 갖는 의미나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룬다거나, 다양한 의미나 기능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위의 교과서 본문에서도 피동 표현을 다룰 때, 의미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피동 표현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둔다'는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기능만을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제시할 교과서에서도 역시 의

미의 초점이 이동하는,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기능만이 다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 • 피동 표현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문법적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주어가 제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같은 사건을 표현한 문장이라도 능동문인지 피동문인지에 따라 문장의 의미 초점이 달라진다.



<그림॥-4>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피동 표현 관련 본문(4)

선행 연구와 후술할 내용과 같이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은 여러 요 인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피동 표현의 기능만을 다루거나, 피동 표현의 파생적인 의미· 기능의 일부만5)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를 검토한 결 과, 각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정리하

<sup>5)</sup> 이를테면 피동 표현은 '담화 수용자 요인을 고려하여 체면을 살려주려는 의도를 표현한다'와 같은 기능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1종뿐이다.

면 <표Ⅱ-8>과 같다.

<표Ⅱ-8> 교과서별 피동 표현의 의미ㆍ기능

교과서	해당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 <sup>6)</sup>			
출판사 (저자)	피동작주 초점화·강조	체면 살리기	객관성 높이기	책임 회피하기
교학사 (김동환 외)	0	×	×	0
금성출판사 (류수열 외)	Х	0	0	0
동아출판 (고형진 외)	X	X	0	О
미래엔 (신유식 외)	0	X	0	0
비상교육 (박안수 외)	Х	X	×	0
비상교육 (박영민 외)	0	X	0	0
좋은책신사고 (민현식 외)	0	X	×	0
창비 (최원식 외)	0	X	×	0
천재교육 (박영목 외)	0	X	×	Х
천재교육 (이성영 외)	0	X	×	0
해냄에듀 (정민 외)	0	X	0	Х

<sup>6)</sup> 후술할 내용과 같이 피동 표현이 기능은 어떤 의사소통 요인을 고려하는지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구본관·신명선(2011:283)에서 제시한 4가지 피동 표현의 기능을 기준으로 삼아 검토하였다.

그러므로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동 표현에 대한 접근 방향은 유지하되, 먼저 기본적인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뿐만 아니라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폭넓게 제시할 필요<sup>7)</sup>가 있다.

또한 피동 표현의 기능은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학습활동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비록 교과서의 본문에서 피동 표현의 기능과 관련된설명 자료를 많이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수행력을 높일 수는 없기 때문(주세형, 2005:51)이다. 학습활동을 통하여 실제의 담화 상황에서 사용된 피동 표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담화 상황에맞게 피동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경험을 할 때야 비로소 학습자들은 피동 표현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강보선, 2020:22)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피동 표현의 기능을 몇 가지 제시하고, 그러한 기능에 해당하는 전형적이고 단순한 피동 표현의 예문만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학습자가 실제로 접하는 다양한 담화 상황과 예문에 대한 학습자의 탐구 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동 표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학습활동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분석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절반에 가까운 교과서들이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본문에서만 기술할 뿐이지, 이와 관련된 학습활동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습활동을 제공하고 있었던 교과서 목록과, 각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 관련

<sup>7)</sup> 강보선(2020)에서도 교과서에서 피동 표현이 지니는 각각의 기능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교과서에서 피동 표현의 다양한 기능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을 때야 비로소 학습자들은 평소에 주목할 수 없었던 피동 표현의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학습활동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Ⅱ-9>와 같다.

<표 | 1-9 > 교과서별 피동 표현의 학습활동 내용

출판사 (저자)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 관련 학습활동 내용
동아출판 (고형진 외)	글쓰기 과정에서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한 이유를 탐구하는 활동, 대화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이유와 표현 효과를 탐구해 보는 활동
미래엔 (신유식 외)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느낌 차이를 탐구해 보는 활동, 보도문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까닭을 탐구하는 활동
비상교육 (박안수 외)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선택에 따라 담화 수용자의 반응이 다른 이유를 파악해 보는 활동
비상교육 (박영민 외)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보고 의미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표현 효과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활동, 안내문에 사용된 피동 표현의 의도를 파악해 보는 활동
좋은책신사고 (민현식 외)	피동문과 능동문의 표현 효과의 차이를 탐구하는 활동
천재교육 (이성영 외)	두 신문 기사에서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를 짐작해 보는 활동

피동 표현 교육을 위해 마련된 국어 교과서의 공통된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피동 표현의 형식을 바탕으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드는 활동이 모든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학습활동임을 알 수있었다. 이는 전술한 현직 교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할 때, 모국어 화자에게 전달되는 교육적 의미는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5>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피동 표현 관련 학습활동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는 일부 학습활동만 다루어진 것과는 상반되게, 모든 교과서에는 피동 표현을 다룰때 피동 표현의 형식과 관련하여 '잘못된 피동 표현8', 즉 이중 피동 표현을 교정하는 활동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다. 이는 김은성 (2013)에서 언급한, 문법에 대하여 여전히 '정확성'의 층위에 머물고 있는셈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학습활동의 실례를 보이면 다음 그림과 같다.

(1) 다음 문장에 쓰인 이중 피동 표현을 올바	마른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써 보자.
• 내 얼굴이 찍혀진 사진을 보았다.	+
• 유적지에서 많은 유물이 발굴되어졌다	ł. →

<그림॥-6>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의 피동 표현 관련 학습활동②

<sup>8) 2015</sup> 교과서의 모든 교과서가 이중 피동 표현을 교정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은 공통적이었으나, 각 교과서마다 이중 피동 표현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씩 달랐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누자면 이중 피동 표현이 피동 표현의 남용으로 본교과서가 8종, 번역 투이기에 교정의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 4종이 있었다.

물론 모든 문법 요소를 교육하고자 할 때, 학습자로 하여금 그 형식을 명확히 인지하게 하고, 문법 요소를 올바른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확성의 층위뿐만 아니라 목적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성'의 층위까지 문법에 대한 관점이 확장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더욱이 문법 교육 역시 국어의 총체적 앎을 성립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언어생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궁극적인 국어 교육적 목표까지 생각하면, 제한된 교과서 학습활동 안에서 형식 중심의 혹은 교정적 관점의 학습활동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1)	윗글에서 밑줄 친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 보고, 의미에 어떤 차이 가 생기는지 말해 보자.
	•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
	• 불볕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2)	앞의 활동 (1)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적어 보자.

<그림॥-7>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피동 표현 관련 학습활동③

<sup>9)</sup> 김중수(2015)에서도 이미 각종 매체에서 '잊혀지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교과서에서만 이를 틀렸다고 한다면 학습자들이 의문을 가지게 됨을 지적한 바 있으며, 강보선(2020)도 이중 피동 표현을 규범적 접근에 의한 오류로만 기술하기보다는, 이중 피동 표현이 지니고 있는 그 나름의 기능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지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그림Ⅱ-7>과 같이 교육과정 방향과 본 연구의 관점을 공유하여, 피동 표현의 사용 효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습활동을 마련한 교과서도 있었다. 다만 이러한 교과서에서조차 피동 표현의 '이해' 차원에 머무르고 있기에, 피동 표현의 효과를 살려 '표현'해보는 학습활동까지 제공하는 교과서는 없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 이는 2015 교육과정에서 담화 상황에 사용된 피동 표현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담화 상황에 맞게 피동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것을 강조하는 것에 배치(강보선, 2020:23)되므로, 이는 후술할 의미ㆍ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 학습활동을 마련하는 데에 큰 참조점이 되었다.

## 2. 피동 표현의 개념과 유형

피동 표현의 특성과 의미·기능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동의 기본적인 개념과 유형을 우선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절에서는 '무엇을 피동 표현으로 볼 것인가'의 물음에 대하여 피동 표현의 개념을 정리하 고자 한다.

## 2.1. 피동 표현10)의 개념

피동은 주어 스스로 행위나 작용을 하지 않고, 주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행위나 작용의 대상으로 서술되는 것을 말한다. 학교 문법에서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함을 표현하는 것, 그 중에서도 문법적 요소에 의해 피동의 의미를 갖는 것을 피동 표현이라는 용어

<sup>10)</sup> 피동에 관한 용어도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문법은 기능과 의미 중심으로 범주화되어야 한다는 김제열(2001)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피동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로 규정하였다.

연구자들은 국어 피동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먼저 일찍이 최현배(1975)는 '월의 임자가 스스로 제힘으로 그 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힘을 입어서 그 움직임은 하는 것'으로 피동을 정의하였다. 남기심·고영근(1993)에서는 즉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등장한 인물이나 사물이 제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남의 행동에 의해서 되는 행위로 피동을 정의하였으며, 이정택(2004)에서는 특정한 사람이나사물 등이 스스로의 힘이 아닌 외부의 다른 힘에 의해 작용을 입게되는 것으로 피동을 정의하고 있다.

우인혜(1997)는 즉 동작주의 동작이 미치던 경험주가 문장의 주어가 되어 그 경험주의 시각으로 표현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범주로 피동 표현을 정의하였다. 특히 우인혜(1997)은 원칙적으로 대응되는 능동문이 있어야 하는 것을 피동 표현의 구문론적인 요건으로 들어, 능동문과의 대응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피동문들은 비전형적인 피동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능동 표현과 비교되는 유표적 선택으로서의 피동표현에 주목하는 면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 2.2. 피동 표현의 유형

국어 피동법에 대한 분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피동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유형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면, 피동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문법 유형은 주로 '-이/히/리/기-'에 의한 접미사 피동 표현, '-어지다'와 '-게 되다' 피동 표현, '받다, 맞다, 당하다'에 의한 어휘적 피동 표현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 피동 표현을 다룸에 있어서 파생적 피 동 표현, 통사적 피동 표현, 어휘적 피동 표현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 고자 한다.

#### (1) 파생적 피동

파생적 피동은 이론 문법에서 가장 전형적인 피동법으로 인정받는 형식으로, 타동사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가 붙어 피동사로 파생되는 것이다.

피동사 '-이/히/리/기-'는 모든 타동사에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동사들과만 결합하여 피동사를 이룬다<sup>11)</sup>. '-이/히/리/기-'에 의한 피동사는 생산적이지 않으며, 이형태 관계에 있는 '-이/히/리/기-'가 각각 어떤 음운론적인 조건을 가지고 동사와 결합하는지에 대한 규칙화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미사 '-이/히/리/기-'는 문법적인 기능을 명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생적 피동 표현은 반드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서정수(1994)와 우인혜(1997)에서는 접미사 피동을 '전형적 피동, 비전형적 피동, 가피동'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먼저 진피동으로 불리는 전형적 피동<sup>12)</sup>은 능동문과의 대응 관계가 분명하며, 주어와 목적어 및 서 술어에 피동 변형이 이루어진 피동문을 말한다. 이와 달리 비전형적 피동

<sup>11)</sup> 이와 관련하여 이익섭(2005)에서는 피동 접미사와 결합한 피동사 목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개다, 깎다, 꺾다, 꼬다, 꿰다, 깨다, 나누다, 낚다, 닦다, 덮
'-이-'를 취하는 동사	다, 뜨다, 볶다, 매다, 묶다, 바꾸다, 보다, 섞다, 싸다, 쌓
	다, 쏘다, 쓰다, 짚다, 짜다, 쪼다, 차다, 트다, 파다, 치다
	걷다, 긁다, 꽂다, 닫다, 뒤집다, 막다, 먹다, 맺다, 묻다,
'-히-'를 취하는 동사	박다, 밟다, 뽑다, 꼽다, 씹다, 얹다, 얽다, 업다, 읽다, 잊
	다, 잡다, 접다, 찍다
	가르다, 갈다, 걸다, 깔다, 끌다, 꿇다, 날다, 널다, 누르다,
	달다, 덜다, 듣다, 들다, 떨다, 뚫다, 말다, 몰다, 물다, 밀
'-리-'를 취하는 동사	다, 벌다, 불다, 부르다, 붙들다, 빨다, 싣다, 쓸다, 썰다,
	열다, 자르다, 찌르다, 털다, 뒤틀다, 비틀다, 팔다, 풀다,
	헐다, 흔들다
'-기-'를 취하는 동사	감다, 끊다, 담다, 뜯다, 빼앗다, 씻다, 안다, 쫓다, 찢다

<sup>12)</sup> 서정수(1994)에서는 전형적 피동문이 갖추는 세 가지 조건을 제약 유형에 따라 정리한 바 있다. 제약 유형과 그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문과 가피동문은 접미사 피동문의 형식을 갖추지만 주로 결과나 상태만을 나타내는 피동문을 일컫는다. 이 때 비전형적 피동문은 전형적 피동문에서 벗어나지만 여전히 행위가 상정될 수 있어 피동성을 지니는 반면, 가피동 문은 피동의 의미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2) 통사적 피동

통사적 피동은 타동사 어간에 보조동사 '-아/어지다'가 결합되는 것으로, 아래 예문에서처럼 파생적 피동의 결합 제약을 보완하면서 두루 사용된다.

OO아파트는 OO회사에 의해 \*지이었다.

OO아파트는 OO회사에 의해 지어졌다.

'-아/어지다' 피동은 제약이 거의 없이 쓰이기 때문에 파생적 피동과 공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파생적 피동과 미묘한 의미 차이를 보인다. 남기심·고영근(1994:300)에서는 이에 대해 파생적 피동은 "원하지않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로, '-아/어지다' 피동은 "그런 결과가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의도적인 힘이 가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래 예문의 비교에서도 파생적 피동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사건의 결과만을 기술하는 태도(이현진.

느도 되도 데ㅇ 게하	전형적 피동문은 반드시 그와 대응되는 능동문이
능동-피동 대응 제약	있어야 한다.
되도 청리 케어	전형적 피동문은 피동 형태로 알려진 '-이/히/리/
피동 형태 제약	기-'에 의해 피동 동사구를 이루어야 한다.
동일 의미 제약	전형적 피동문의 기본 의미는 대응되는 능동문이
	지닌 뜻과 본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2002:18)가 보이는 반면, 통사적 피동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관심이 잠정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라는 태도(이현진, 2002:18)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체로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공존할 경우, 통사적 피동 표현에 행위자의 동작성이 더 드러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꽃이 꺾였다.

꽃이 꺾여졌다.

한편, '-아/어지다'는 타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와 자동사와도 자유롭게 결합하므로 피동 표현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하늘이 맑아졌다.

먹을 것에 자꾸 손이 가진다.

위의 두 예문에서 사용된 '-아/어지다'는 피동 표현을 실현시키는 문법적 장치로 보기는 어려우며<sup>13)</sup>, 각 문장의 서술어에 보조동사 '지다'의의미가 더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이현진, 2002:19)하다. 따라서 자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피동 표현이 아니라 단지 상태 변화인 것(남경영, 2019:23)으로 처리한다.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에 있어서 부사형 어미 '-게'와 보조용언 '되다'가 결합하는 것 역시 통사적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백봉자(1999)에 따르면 '-게 되다'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행위나 상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그 동작을 하게 되거나 그 상태에 있게 되는 피동 형태(백봉자, 1999:230)이며, 그러한 의미로부터 '결국, 마침내, 드디어'와 자주 함께 쓰

<sup>13)</sup> 우인혜(1997:190)에서도 '자동사+아/어지다' 구문을 피동의 의미를 지닌 표현 이라기보다는 기동상의 의미를 갖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 표현을 피동 표현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인다고 하였다.

내가 프로그램의 사회자를 맡았다. 내가 프로그램의 사회자를 맡게 됐다.

위 예문에서와 같이 '-게 되다'가 결합하면, 주어 이외의 힘에 의해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고, 문장의 주어가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인해 변화를 입게 되었다는 피동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3) 어휘적 피동

'-이/히/리/기-'에 의한 피동 표현은 의미적인 면에서 피동성을 지닐뿐아니라 문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피동 표현이지미나, '되다, 받다, 당하다'에 의한 피동 표현은 의미적인 면에만 피동성이 나타난다. 즉, 피동의 의미를 드러내기는 하나 문법적으로는 피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사마와디, 2016:20). 그러나 최현배(1978)에의하면 이른바 '하다' 따위 용언을 피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하다'를 '되다, 받다, 당하다'로 바꾸어 넣으면 된다고 하였기에, '되다, 받다, 당하다'에 초점을 두고 그 특성을 살펴본다.

전술하였듯 어휘적 피동은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의 타동사에 대응하는 피동 표현으로 '하다' 대신 '되다', '받다', '당하다' 등의 동사가 사용된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 사람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앞의 예문에서와 같이 타동성 명사에 '-되다'가 결합한 피동문은 문장

의 주어가 자기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주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입는다는 의미를 나타내기에 의미적으로 피동성을 갖고, 대 응하는 능동 표현이 존재하므로 피동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되다'에 의한 피동 표현은 문장의 주어가 적극적으로 원하거나 피해를 입는 행위가 나타날 때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으 며<sup>14)</sup>, '-당하다'에 의한 피동 표현은 문장의 주어가 원하지 않는 영향을 받았음을 기본 의미로 하므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타동성 명사와는 결합하지 못하는 제약(사마와디, 2016:24)이 있다는 점에서 구분 지점이 있다.

나는 그에게 \*사랑되었다.

나는 그에게 \*사랑당했다.

나는 그에게 사랑받았다.

끝으로 '받다'에 의한 피동 표현은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피동주가 행위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와, 피동주가 적극적으로 행위의 영향을 입는 경우의 두 가지 경우에 쓰인다.

그 작가는 독자들에게 비판받았다.

나는 선배에게 졸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았다.

<sup>14)</sup> 우인혜(1997)에 따르면 피동 주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되다'가 쓰인 것은 그 사실을 중립적으로 알리거나 보도하는 경우이다.

## 3.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

이 장에서는 인지 언어학 이론의 전경과 배경에 대한 논의와 동기화 이론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여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의 기제를 살피고 자 한다. 이어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일 것이다.

## 3.1.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 실현의 이론적 바탕

#### (1) 전경과 배경 이론

우리는 어떤 장면을 경험할 때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인지적성향을 갖고 있다. 인간은 전경과 배경을 동시에 인식할 수 없기에, 이러한 성향은 지각된 장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초점이 부여되는 요소인 전경을 배경으로부터 구별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최지영, 2010:36). 인간이 접하는 시각 정보는 객관적이지만 어떠한 정보를 전경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장면을 해석하는 주체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인지 언어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전경과 배경의 원리가 언어에 표상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화자는 초점을 두는 요소를 언어 구조에 도상적으로 반영하여, 화자가 초점을 두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게 된다.이러한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피동 표현을 보면, 피동 표현은 행위 대상을 중심으로 사태를 파악하려는 담화 생산자의 인식 방식이 문법 범주를 통해 드러난 것(신명선, 2010:101)이다.

수지는 나의 언니를 닮았다. (Suzy resembles my sister.) 나의 언니는 수지를 닮았다. (My sister resembles Suzy.)

전경과 배경 원리의 영향력은 위와 같은 대칭적 구문에서 더욱 명확

히 확인할 수 있다. 한 문장의 구성 요소를 지배적인 요소로 선택하는 것은 담화 생산자에게 달려 있는데, 언어학적으로 볼 때 현저성을 명시하는 방법은 바로 담화 생산자가 선호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를 주어 위치에 놓는 것이다. 위의 두 문장에서도 선택된 주어가 전경으로 더현저함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수지가 다른 어떤 사람과 관련하여 평가되는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상황이 역전되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은 피동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피동 표현은 동일한사건에 대해 담화 생산자가 어디에 현저성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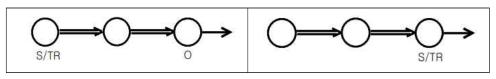
유진이가 모기에게 물렸다. 모기가 유진이를 물었다.

전자와 같은 피동 표현에서는 행위를 입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 반면, 후자와 같은 능동 표현에서는 행위의 주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담화 생산자는 문장의 의미를 바꾸지 않으면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전경으로 선택한다. 이와 같이 언어적으로 전경을 선택하는 원리는 곧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기능이 실현되는 기제가 된다.

전경-배경 이론에 의한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 도출에 있어서는 래내커(Langacker)의 설명을 참조할 만하다. 래내커가 전개한 인지 문법에따르면, 간단한 타동절에서 주어는 전경에 대응하고, 목적어는 배경에 대응하며, 동사는 전경과 배경 사이의 관계를 표현(임지룡·김동환, 1998:259)한다. 이처럼 언어적으로 전경을 선택하는 원리를 곧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이 발현되는 기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래내커는 문장 구조에 대하여 에너지 전달의 개념을 생성(임지룡·김동환, 1998:262)하였다. 래내커에 따르면 행위자는 에너지 흐름의 시발자로서 어떤 상황에서 가장 현저한 요소이기에, 통사적 전경, 즉 주어의 위상이 부여된다.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능동 표현은 힘 전달이 시작되는 부분인 머리를 주어로 선택하는 반면, 피동 표현은 힘 전달이

끝나는 지점인 꼬리를 주어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힘 전달이 끝나는 지점에 오히려 해석의 현저성을 부여하는 피동 표현은 자연스러운 방향에 역행하기 때문에 능동에 비해 유표적인 표현이 된다.



<그림॥-8> 능동 표현 모형

<그림॥-9> 피동 표현 모형

이처럼 담화 생산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유표적인 피동 표현에는 담화 수용자의 주의를 더욱 요구하게 된다. 여기에서 담화 생산자가 강 조하고자 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피동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 (2) 동기화 이론

'동기화(motivation)'는 일반적으로 '자의성'과의 대조를 통해 그 개념이 파악(정병철, 2016:)된다. 소쉬르는 자의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호의특성을 '동기화'라고 부르고, 동기화가 자의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고보았다. 소쉬르의 설명 이후 '자의성'은 언어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이해되어왔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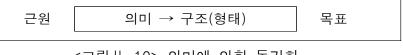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론적 토대로 삼고자 하는 인지 언어학에서는, 언어의 자의성보다 동기화가 언어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본 다. 인지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언어의 구조는 인간 인지의 직접적인 반 영이며, 특정 언어 표현은 상황을 개념화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보 기 때문(임지룡 외, 2018:5)이다. 동기화는 국내에서 '유연성, 배의성, 동

<sup>15)</sup> 현재 교육 현장이나 국어 교과서에도 '자의성'만이 언어의 본질로 제시되고, 모방적 도상성이 나타나는 의성어 정도만을 예외로 두고 있다.

기 부여' 등으로 번역해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동기화의 개념을 다소 다르게 정의(임지룡 외, 2018:7)하고는 있지만, 결국 언어의 구조(형태)와 의미가 자의적이기보다는 서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관련성을 동기화라고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따라서 동기화란 '언어 구조와 의미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관계(송현정, 2010:14)'라고 할 수 있다.

정병철(2016)에 따르면 동기화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어떤 특정한 구성의 형태(구조)는 특정한 추상적인 의미(기능)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어떤 구성의 형태와 의미는 구조적 도상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어떤 구성과 다른 구성의 형태가 다르면 두 구성의 의미도 다른 부분이 있다. 셋째, 어떤 구성의 형태와 의미의 관계를 완전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16).

임지룡(2010)에 따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의미가 구조를 동기화하는 경우가 동기화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으로 간주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도상성(iconicity)'이다. 도상성이란 언어의 구조(형태)와 의미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으로, 도상성에는 '도상적 양', '도상적 순서', '도상적 거리'의원리 등이 있다. 이 중 '도상적 양'의 원리는 개념의 복잡성 정도가 언어적 재료의 양과 비례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사람'에 비해 의미상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의미의 양이 형태의 양을 동기화한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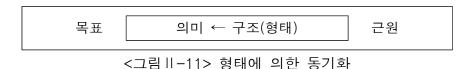


<그림॥-10> 의미에 의한 동기화

<sup>16)</sup> 모든 언어가 자의적이지 않고 동기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에 있어 동기화란 정도(degree)의 문제이다. 레이코프(Lakoff)는 "대부분의 언어는 전적으로 자의적이지도 않고 전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어느 정도 동기화되어있다."고 하였고, 판터(Panther)는 동기화의 정도에 대해 "자의성과 예측 가능성의 양극단 사이에 있는 연속적 연역"이라고 하였다(송현정, 2010:15).

피동 표현에서도 이와 같은 동기화된 특성들이 발견된다. 인지 언어학과 동기화 이론을 토대로 피동 표현을 바라보면, 피동 표현은 단순히 능동 표현의 구성에서 변형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동 표현은 능동 표현과 다른 해석의 방식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된것이다. 담화 생산자는 피동 표현 구성을 위해 '-이-, -히-, -리-, -기-'와 같은 접사나 '-어지다', '-게 되다'와 같은 구성을 붙이는데, 이것이동기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피동 표현은 능동 표현에 비해 형태가 복잡한 만큼 더욱 필요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담화 생산자의 선택과 사용이므로, 이는 '형태가 의미에 의해 동기화되는경우(구조적 도상성)'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더욱 주목한 동기화의 특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의미가 형태가 의해 동기화되는 경우'로, 이는 '하나의 형태에 하나의 의미'라는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형태의 동일성은 의미의 동일성을 시사하므로 이는 곧 형태의 차이는 의미의 차이를 시사(정병철, 2016:141)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고깃배'와 '고기배'는 사잇소리의 유무에 따라 그 의미가 구별되는데, 이때의 사잇소리가 형태의 차이를 통해 의미의 차이를 표시 하기 위한 동기로 사용된 것이다. 다음과 같은 문장은 언어 형태의 차이 가 의미의 차이를 유발하는 또 다른 예이다.

그들은 우리가 이사 <u>가기</u>를 바랐다. 그들이 밤새 이사 **갔음**은 분명하다. 국어에서 '-기'와 '-(으)미'은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지만, 동일한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두 문장을 비교해보면 '-기'와 결합할 때에는 '예측적' 사건성이, '-(으)미'과 결합할 때에는 '선행적' 사건성이(임지룡 외, 2018:14) 나타난다. 이는 서로 다른 형태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를 동기화하는 사례가 된다.

이와 같이 형태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인식 아래에서는 형태가 다른 피동 표현들, 이를테면 피동사에 의한 피동과 '-어지다'에 의한 피동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유진이는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혔다**. 유진이는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어졌다.** 

위의 두 문장을 비교하면, 같은 피동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자연스럽다. 이는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는 것이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기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이러한 추측은 같은 동사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두 형식으로 만들되 행위자의 의도를 개입시킨 문장을 생성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진이는 팔이 길어서 등이 잘 <u>**긁힌다**</u>. 유진이는 팔이 길어서 등이 잘 **긁어진다**.

위의 두 문장에서는 오히려 후자가 자연스러운데, 이는 등을 긁는 데에 행위자의 의도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피동사에 의한 피동에 비해 '-어지다'에 의한 피동 표현이 행위자를 부각(정병철, 2016:158) 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어, '어떤 구성과 다른 구성의 형태가 다르면 두 구성의 의미도 다르다'는 동기화의 특성으로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 차이를 다룰 수 있는 것이다.

## 3.2. 피동 표현의 의미ㆍ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할리데이(Halliday)는 문법을 규칙이 아닌 체계로 이해하여, 모든 문법 구조가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형성(이관규 외, 2021:19) 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흐름을 따르는 체계기능 언어학에서는 언어가 체 계적이면서도 각각이 나름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화자가 특정한 의도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중 요하게 바라본다. 본 연구에서도 체계기능 언어학의 기본 관점 아래, 담 화 생산자가 능동 표현이 아닌 피동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또 형식이 다 른 피동 표현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나타나는 담화 생산자의 표현 의 도에 따른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에 주목하고자 한다.

체계기능 언어학은 언어를 단순히 형식과 의미로 나누어 보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맥락까지 언어의 기호적 층위에 포함시킨다. 다시 말해 체계기능 언어학에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화자와 청자, 맥락, 해당 언어 표현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또한 의미·화용적 특성 규명 작업의 시작은 의사소통 상황 규명에서부터 시작되며, 의사소통에 관한 간단 모형은 아래와 같이 그릴 수 있다(신명선, 2010:86).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살필 때에도, 피동 표현을 선택할 때 고려되는 요인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의사소통 상황				
담화 생산자의	$\rightarrow$	실체로서의	$\rightarrow$	담화 수용자의
인지 체계	표현화	언어	이해화	인지 체계
			<u> </u>	

<그림 || -12> 의사소통 모형

#### (1) 담화 생산자 요인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은 동일한 명제를 표현하는 의미적 짝을 이룬다. 특정 맥락에서 능동 표현이 가능함에도 피동 표현이 쓰이는 이유는 특정 맥락에서의 담화 생산자의 '표현'과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술하였듯,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피동 표현은 담화 생산자의 사태 인식 방식을 드러내는 데에, 즉 피동 표현은 담화 생산자가 강조하고 싶은 대상에 초점을 맞출 때 사용되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에서처럼 담화 생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에 따라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그를 쫓고 있다. 그는 경찰에게 쫓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쿠노(Kuno)는 담화 생산자가 더 큰 감정적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다음의 텍스트에서는 '삼성전자'에 초점을 맞추어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전략적 피동 표현의 사용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SA는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7.7%에 그쳐, 최근 6년 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아이폰7으로 역대 최고 판매를 기록한 애플에 세계 1위 자리를 빼앗겼다.

한편 담화 생산자는 행위자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완화하고 회피하기 위해 피동 표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사태의 원인이 행위자로 인한 것일 경우, 행위의 주체를 숨겨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효과(박민신, 2019:128)를 가져오는 선택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담화 생산자 요인에 따른 피동 표현의 선택이 잘 드러난다.

구매하신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u>적립해</u> 드립니다. 포인트 카드를 소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긍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능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였지만, 적립해 주지 않는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행위자인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이현진, 2002:35) 때문이다. 이처럼 부정적인 사태를 진술함에 있어서 피동표현의 사용은 행위의 주체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킴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2) 담화 수용자 요인

피동 표현은 대인 관계의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도 사용(이현진, 2002:35)될 수 있다. 이해영(1995)에서는 피동 표현의 이러한 기능을 '부담 줄이기'와 관련하여 언급하면서 화자가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윤현애(2011) 역시 화자와 청자의 힘이 대등하지 않거나 서로 친숙하지 않을 경우에 주관을 배제한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청자의 부담을 줄이는 면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의도를 지닌 피동 표현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두 발화를 살펴보면, 피동 표현을 활용한 발화가 후자가 상대방, 즉행위자인 청자의 체면을 덜 손상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요금 납부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 요금 납부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같은 맥락에서 외교적·정치적 상황에서도 피동 표현은 흔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활용된다. 다음의 인터뷰 상황에서는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행위자들을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 실장은 윤 후보의 선대위 개편안에 대해 "일단 충분히 개편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가 아직 <u>안 되신</u> 것 같아서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물론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담화 수용자 요인을 고려한 피동 표현 사용은 이루어진다. 아래에서 담화 생산자는 자신이 일을 잘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화 수용자 요인을 고려하여 행위자인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이현진, 2002:35)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일 처리하느라 힘들었지? 수고했어요."

"뭘요, 생각보다 일이 잘 <u>해<mark>결됐어요</mark>."</u>

## (3) 담화 유형 요인

보고 텍스트는 신문 기사나 뉴스 원고와 같이 정보 전달을 핵심 기능으로 하면서 대중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인 의사소통을 말한다. 신명선·박재영(2004)은 이러한 보고 텍스트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피동 표현의 빈번한 사용을 꼽은 바 있다.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피동 표현의 사용이 보고 텍스트가 목적으로 하는 정보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의 두 뉴스 텍스트에서도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행위자보다는 대상의 초점을 맞추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800km까지 달리는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신개념 배터리 기술이 **개발됐다**.

'양주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최인호(2001)에서는 보고 텍스트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예언이나 추천, 평가와 같은 기능을 할 때에도 널리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때 보고 텍스트의 평가에 관한 내용에서 피동 표현의 사용은 기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이현진, 2002:89)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아래의 두뉴스 텍스트에서도 기자 개인이 파악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동 표현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인상이 부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가 자산이 중복으로 계산 돼 입주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주에도 주식 시장이 하락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피동 표현의 사용과 그 효과는 학술 텍스트에서도 적용된다. 일찍이 그린바움 · 쿼크(Greenbaum&Quirk)가 '과학적 · 전문적 글쓰기에서 I 나 We와 같은 주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기보다, 수동을 사용함으로써 작가가 바라는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신명선(2004)에서 역시,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학술 텍스트에서 피동 표현의 어휘가 주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토양 습도와 먹이 유효도와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요인에 의한 제한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u>사료</u>된다.

통시적 관점을 배제한다면, 자의적인 특성에 의해서 야기된,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강제된 유사성으로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제민경(2015)에서도 객관성의 의미 기능을 실현하는 요소로 피동을 들며, 언어 주체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을 숨겨 객관성을 강화한다고 보았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에서 흔히 <u>발견되는</u> 박테리아로 위궤양 또는 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u>알려지고</u> 있으나, 이밖에 심장병, 자가면역 질환, 피부병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위의 과학적 기술에서 담화 생산자는 피동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을 명시되지 않은 권위에 돌리고 있음(이현진, 2002:30)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피동 표현은 텍스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담화 유형 요인에 따라 선택되기도 하고, 주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 (4) 언어 형식 요인

피동 접사에 의한 피동 표현, '-어지다' 구성의 피동 표현, '-게 되다' 구성의 피동은 각각 고유한 의미와 기능이 있으므로 상황과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되어야 한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은 행위자의 의도성이 개입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정병철, 2016:168).

오늘 물건이 잘 **팔린다.** 오늘 물건이 잘 **팔아진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 피동 접사에 의한 피동 표현에 비해 행위자와 의도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경향은 같은 동사인 '팔다'를 피동 표현으로 만든 위의 두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건이 팔리는 사건은 파는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구매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피동 접사에 의한 피동인 첫 번째 문장은 자연스럽지만, 두 번째 문장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

한편 '-게 되다'에 의한 피동은 주어가 행위자인 사건 전체가 외부의 불분명하고 간접적인 힘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정병철, 2016:168).

만약에 단일화를 정말 하<u>게 된</u>다면 결국은 여론 조사 결과를 취할 수 밖에 없을 텐데, 그 때는 정권 교체 희망자 또는 단일화희망자로만 조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이것은 아직 가능성의 영역이고 단일화가 정말 정치적 의제로 부상해서 핫이슈가 된다면, 시민들의 답변 태도도 조금은 바뀌어질 것 같고 많이 따져보**게 될** 것 같습니다.

위의 라디오 담화 상황에서 출연자는 '-게 되다'에 의한 피동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일화를 하게 만든 영향이나, 시민들의 답변이 변하도록 만든 힘이 어떤 것인지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행위자의 의지가 있어야만 작용할수 있기에 이러한 피동 표현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게 되다'에 의한 피동 표현은 다른 방식에 비해 피동의 특징이 가장 약하게 나타나는 편이다(정병철, 2016:168).

<표 11-10> 피동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요인

의사소통 요인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 세부 교육 내용
담화 생산자 요인	- 초점화하기, 강조하기
급환 경면서 표면	- 책임 회피하기
담화 수용자 요인	- 부담 줄이기
금와 구승자 표신	- 체면 살리기
다취 오취 이이	- 객관성 확보하기
담화 유형 요인	- 설득력 높이기
어진 철사 오이	- 의도성 강화하기
언어 형식 요인	- 피동성 약화하기

## 4. 의미ㆍ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의의

## 4.1. 학습자의 언어적 민감성 신장

구본관(2010)에서는 국어 교육은 모국어 화자가 모를 수 있는 문장의 미세한 차이를 문법 교육의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실제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함을 촉구한 바 있다. 제민경(2015)에서도 '문법하는 인간'이라는 교육적 인간상을 상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식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성이 전제되어야 학습자가 언어적 주체로서 수많은 언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에서는 학습자

로 하여금 피동 표현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표현이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교육적 의의는 교수학습 후의 학습자의 소감에서도 나타난다.

【S-6】 피동 표현의 기능이랑 피동 표현이 쓰이는 상황을 배우면서 요셉이 형이 생각났다. 형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확실 히 말하지 않고 쪼는 것처럼 돌려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 각했는데 <u>나쁜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u> 듣는 나에게 효과는 좋지 않았지만 <u>배려해 주려는 의도가</u>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학습자 S-6은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교수학습이 이루어기 전에는 단순히 '돌려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주변 사람을 떠올리고 있다. 피동 표현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말하지 않'는 느낌이 피 동 표현의 잦은 사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표현의 사용에서 '배려해 주려는' 담화 생산자의 의도 를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페어클로(Fairclough)에 따르면 대중 매체의 경우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페어클로(Fairclough)는이를 '대중 매체 담론의 일방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담론 형성의 일방성은 담화 생산자의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국어교육에서도 비판적 언어 인식의 관점에서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미·기능 중심의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에서는 아래와 같은 신문 기사의 인터뷰에서 사용된 피동 표현에 주목하도록 하였다.

기획 예산처 관계자는 "비교적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기초노 령연금 등의 변수가 발생한 만큼 별도의 재원 대책이 <u>마련되지</u> <u>않으면</u> 국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 채무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선대본부는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현재 2.1조 원이나, 모든 병사를 최저임금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약 5.1조 원 증가한다"며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예산 5.1조 원의 재원은 예산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위의 기획 예산처 관계자는 노령연금제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재원 대책'을 주어로 삼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인 자신을 드러내지않고 있다. 반면, 마찬가지로 '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련하다'라는 서술어가 등장하는 또 다른 기사문에서는 앞선 기사문과 달리 능동 표현을 사용했음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병사 급여 인상을 발표하는 공략을 내세우며 행위의 주체를 표현하기 위한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후 학생의 소감에서 교육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S-1]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동 표현을 쓴다는 점이 가장 재미있었다. 실제로 찾아봤을 때도 "교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놀랐다. 사실 교환해주지 않는 건데 뭔가 교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습자 S-1은 위와 같은 텍스트를 활용한 피동 표현의 기능을 학습한 후, 스스로 수집한 언어 자료 중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쓰인 피동 표현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교묘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을 통해 얻은 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언어 주체로서의 학

습자가 담화를 더욱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에서는 피동 표현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러한 표현에 담지된 담화 생산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언어적인 민감성을 신장할 수 있다. 이는 곧 학습자를 문법하는 인간으로 양상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문법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4.2. 학습자의 언어적 자원 증대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은 학습자가 담화를 생산할 때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적 자원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김자영(2014)에 따르면 어떤 언어 형식을 사용할것인지, 나아가 이 언어 형식을 통해 언어 주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였을 때, 문법 요소는 수사적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언어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콜른과 그레이(Kolln, M. & Gray, L.)가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필자가 지닌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 '수사적 문법' 개념을 주장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학습을 통해문법 요소에서 비롯되는 수사적 효과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본 것이다. 체계기능 언어학을 주창한 할리데이(Halliday) 역시 담화 생산자가 선택한 문법 요소가 특정 효과를 나타낸다는 관점을 주지하여, 수사적 전략으로서 언어적 자원에 주목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주장하는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은 단순히 피동 표현에 대한 문법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 생산자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언어적 자원으로써 피동 표현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테면 같은 장면을 묘사하더라도 담화 생산자의 관점과 초점에 따라 통사적 전경, 즉 주어를 달리 부여하는 방법으로 피동표현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를 적용하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수집한 학습자의 응답에서도 이러한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S-3] 일단 결과를 불러온 건 나인데, 내가 의도한 건 아니라고 알리고 싶을 때 피동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미 안한 일 생기면 '그렇게 됐어' 이런 느낌으로.

학습자 S-3은 '좀 미안한 일'이 생길 때 피동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 피동 표현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은 자신의 해석이나 미묘한 의미까지 전달할 수 있는, 정교한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천경록(1995)은 언어적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전략'이란 담화 생산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담화 생산자의 의식적 ·계획적인 활동으로 보았다. 의미 · 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언어 사용에 관심을 두고, 학습자의 언어적 자원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아래 역시 의미 · 기능을 중심으로 한 피동 표현 교육실행 과정에서 학습자 응답의 일부로, 교수학습과정을 통해 자신이 고려하는 요인에 따라 더욱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언어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

# 【S-2】 예의를 차려야 할 때는 피동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알 았다. 그래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려 고 할 때는 능동 표현을 쓸 수 있겠다.

학습자의 구체적인 응답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미·기능 중심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에서 학습자들은 피동 표현에 의도를 담아 담화 수용자의 주의를 행위자로부터 돌리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담화 수용자의 체면을 생각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획적으로 피동 표현을 선택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한다. 이처럼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은학습자가 담화를 생산할 때 표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 도움이되는 언어적 자원을 증대시켜, 담화 생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문법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Ⅲ. 학습자의 피동 표현 이해 양상 분석

Ⅲ장에서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Ⅱ 장의 논의를 토대로 질문지 문항을 구상하고, 질문지와 사후 인터뷰 조사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이 피동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양상을 유형화하였다. 이러한학습자 조사와 분석의 결과에서 얻은 시사점을 Ⅳ장의 교육 실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1.1. 자료 수집 방법

Ⅲ장의 자료 수집의 대상으로 선정한 학습자<sup>17)</sup>는 D중학교 3학년 학습자 68명과 N중학교 2학년 학습자 72명으로 총 140명이다. 본 조사에서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질문지 문항을 제작하여 학습자들이 피동 표현이나 능동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서면 조사를 보완하고자각 유형의 학습자 특징이 두드러졌던 학습자를 선정하여 사후 면담도 진행하였다. 가급적 대면 인터뷰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인터뷰이의 사정에 따라 유선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하게 학습자 자료를 수집하여 그 양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sup>17)</sup> 학교급이 다르고 학업 성취도 수준이 다른 학교에 비해 매우 높은 S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의 경우에는 교육의 실제와 적용의 사례에만 활용하였다.

### 1.2. 자료 분석 방법

학습자의 응답 결과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자료 분석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 인식 활동의 경험적 속성을 다룬 남가영(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학습자의 응답 결과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남가영(2006)에 따르면 국어 인식 활동은 국어를 의식적인 주목의 대상으로 삼아 사고하고 탐색하는 활동으로, 본고가 지향하는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현실태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때문이다. 국어 인식 활동은 구체적으로 '관찰', '기술', '분석', '설명' 등의활동 양상으로 구현되는데, 본 조사의 학습자의 응답에서도 이러한 언어활동적 요소를 추출하여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고는 질적 내용 분석<sup>18)</sup>(qualitative content analysis)에 따라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텍스트의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에 잠재되어 있는 내용과 맥락까지 다루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즉, 학습자가 피동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술한 텍스트에 근거하여, 학습자응답에 내재되어 있는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의 파악에 관한 내용을함께 살피고자 하였다.

## 2. 조사 문항의 설정

과제의 문항은 학습자가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얼마나,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안하였다. 학습자는 각 과제의

<sup>18)</sup> 내용 분석이란 '메시지의 구체적 특성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여러 가지 추론을 만들어내는 그 어떤 기술'(Holsti, 1969; 김석우·최태진, 2007: 348 재인용)로, 그중 질적 내용 분석은 연구자 자신을 하나의 측정 도구로 활용하며, 연구자의 해석적 추론을 요구한다. 이때 질적 해석은 기술적 자료를 넘어서 발견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을 제시하고, 추론하는 등의 수행을 의미한다(Patton, 2015; 김진호 외 역, 2017: 868).

질문지에서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 사이에서, 또 형식이 다른 피동 표현 사이에서 두 문장을 비교하여 그 의미 차이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을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sup>19)</sup>,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피동 표현이 사용된 텍스트는 문어과 구어를 아우르며, 기사문, 안내문, 일상 대화 등 최대한 다양한 담화 유형이 포함되도록 하여, 학습자들의 양상을 폭넓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탐구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능동 표현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기능 파악 양상을 확인하는 과제(과제①),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피동 표현의 파생적인 의미·기능 파악 양상을 확인하는 과제(과제②), 마지막으로 형식이 다른 피동 표현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양상을 확인하는 과제(과제③)가 그것이다. 학습자응답을 분석할 때에는 '왜 그 표현을 선택하였는가'에 주목하여 학습자자료를 유형화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Ⅲ-1> 탐구 과제 개요

과제	과제 문항의 목표	이론적 배경
과제①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양상을 조사	전경과 배경 이론
과제②	피동 표현의 파생적인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양상을 조사	피동 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요인
과제③	형식이 다른 피동 표현 간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양상을 조사	동기화 이론 (형태→의미)

<sup>19)</sup> 탐구 과제 문항의 피동 표현은 단순히 행위 주체를 모르는 경우 등과는 다르게, 어떠한 표현 효과를 위해 유표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설정하였음은 물론이다.

## 2.1.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ㆍ기능 파악

Ⅱ장에서 전술하였듯 인지 언어학 분야에서는 심리학에서 이루어진 장면에 대한 전경과 배경의 구분이 언어에도 표상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전경과 배경의 비대칭성이 언어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주어는 전경에 해당하여 '현저성'을 표명하기 위해 설정된다. 이와 같은 전경-배경의 논리를 능동 표현과 비교하여 피동 표현의 의미ㆍ기능 차이를 파악하는 탐구 과제에 반영하였다. 같은 진리치를 가진 문장이더라도 능동 표현은 '행위자 중심'의 표현, 피동 표현은 '행위 대상 중심'의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경으로 설정한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 피동 표현을 선택하는 원리는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ㆍ기능이 되므로,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ㆍ기능을 '강조하고 싶은 대상에 초점 맞추기'로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과제①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 <표 III-2> 과제(1)의 일부

- (가)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
- (나)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





- 1-1. (가) 문장과 (나) 문장 중 한 문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두 표현의 의미나 기능에서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선택하세요.
- ① 두 문장의 의미나 기능이 완전히 같음.
- ② 두 문장의 의미나 기능이 거의 같음.
- ③ 두 문장의 의미나 기능 차이가 보통임.
- ④ 두 문장의 의미나 기능이 조금 차이 남.
- ⑤ 두 문장의 의미나 기능이 매우 차이 남.
- 1-2. 그림을 참고하여 (가) 문장과 (나) 문장 중 한 문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를 쓰세요.
- ① (가) 문장 선택, 선택 이유:
- ② (나) 문장 선택, 선택 이유:
- ③ 기타 선택, 다른 문장 사용과 그 이유:

## 2.2. 피동 표현의 파생적인 의미ㆍ기능 파악

전술하였듯 피동 표현은 통사구조에서 비롯되는 기본적인 의미·기능에서 나아가 여러 가지 파생적인 의미·기능을 가진다. 먼저 담화 생산자는 행위자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완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동 표현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피동 표현의 사용은 단순히 행위 대상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담화 생산자가 의도적으로 행위자에 대한 시점을 배제함으로써 담화 수용자가 행위자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현진, 2002: 34)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학습자가 인식 양상을 파악하고자 피동 표현의 첫 번째 파생적인 의미·기능을 담화 생산자 요인을 고려한 '책임 회피하기'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은 문항을 제작하였다.

#### <표Ⅲ-3> 과제②-1의 일부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수집 정보에 대하여 동의 열람, 정정, 동의 철회 및 삭제, 처리 정지 등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철회 삭제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 (가) 이용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 (나) 이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2-1-2. (가) 문장과 (나) 문장 중 한 문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를 쓰세요.
  - ① (가) 문장 선택, 선택 이유:
  - ② (나) 문장 선택, 선택 이유:
  - ③ 기타 선택, 다른 문장 사용과 그 이유:

다음으로 구본관·신명선(2011)에서는 피동 표현이 주어를 숨김으로써 청자의 체면 살리기 효과를 가지는 완곡한 표현이 됨을 언급하였다. 이 는 첫 번째 피동 표현의 첫 번째 파생적 의미·기능을 도출하는 과정과 근거가 같지만, 피동 표현의 의도적 사용의 초점이 '담화 생산자'에 있다 기보다 '담화 수용자'에 있어 구분 지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피동 표현의 두 번째 파생적인 의미·기능 을 '담화 수용자 배려하기'로 설정하여 아래와 같은 문항을 제작하였다.

#### <표Ⅲ-4> 과제 ②-2의 일부

- (가) (점원에게) 컵을 안 닦았네요.
- (나) (점원에게) 컵이 안 닦였네요.
- 2-2-2. (가) 문장과 (나) 문장 중 한 문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를 쓰세요.
- ① (가) 문장 선택, 선택 이유:
- ② (나) 문장 선택, 선택 이유:
- ③ 기타 선택, 다른 문장 사용과 그 이유:

마지막으로 윤현애(2011)에서는 한국어 피동 표현이 공식적인 상황과정보 제공 담화에서 높은 비율로 출현함을 보였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담화에 해당하는 예로는 뉴스 담화가 대표적인데 이는 송현정(1994)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능동 표현의주관성을 제거하게 되어 객관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하여 피동 표현의 세 번째 파생적인 의미·기능을 담화 유형을 고려한'객관성 높이기'로 설정하고,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살피고자 다음과 같은 문항을 제작하였다.

#### <표Ⅲ-5> 과제②-3의 일부

지금까지 연구는 타파눌리 오랑우탄들이 다른 수마트라 오 랑우탄과 행동학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3년 유 전자 연구를 할 수 있는 다량의 오랑우탄 유골이 발견됐고, 37 마리 오랑우탄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전혀 다른 종임을 밝혀 낼 수 있었다.

유전자 연구 결과 (가) 타파눌리 오랑우탄을 가장 오래된 오랑우탄이라고 밝혔다. / (나) 타파눌리 오랑우탄은 가장 오래된 오랑우탄으로 밝혀졌다. 학계에서 타파눌리 오랑우탄 을 정식 종으로 인정할 경우, 인간을 제외한 유인원은 7종으로 늘어난다.

- 2-3-1. (가) 문장과 (나) 문장 중 한 문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두 표현의 의미나 기능에서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선택하세요.
- ① 두 문장의 의미나 기능이 완전히 같음.
- ② 두 문장의 의미나 기능이 거의 같음.
- ③ 두 문장의 의미나 기능 차이가 보통임.
- ④ 두 문장의 의미나 기능이 조금 차이 남.
- ⑤ 두 문장의 의미나 기능이 매우 차이 남.
- 2-3-2. (가) 문장과 (나) 문장 중 한 문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를 쓰세요.
- ① (가) 문장 선택, 선택 이유:
- ② (나) 문장 선택, 선택 이유:
- ③ 기타 선택, 다른 문장 사용과 그 이유:

### 2.3. 피동 표현 간의 의미ㆍ기능 파악

세 번째 과제의 설정 근거는 형태의 차이가 있으면 의미에도 차이가 있다는 '동형성의 원리'에서 출발한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 결론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개의 형태를 쓰는 것은 언어 사용에 있어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형태의 차이는 의미의 차이를 알리는 단서(정병철, 2016:141)이 된다. 따라서 피동 표현 역시 형태가 서로 다르다면 의미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피동사와 '-어지다'가 결합한 서술어는 상보적으로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어떤 타동사가 피동사 파생이 가능하면 '-어지다'에 의한 피동 표현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닫히다-닫아지다'처럼 접미사와 '-어지다'에 의한 피동 표현을 모두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때 피동사를 가지는 피동문의 의미는 '-어지다'를 가지는 피동문과의비교에서 잘 드러나는데, 대체로 '의도성의 차이'를 가진다. 예를 들어'굴뚝이 저절로 막히었다.', '굴뚝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막아졌다'라는 두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비의도적인 문맥에서는 피동사 피동이더 자연스럽고, 의도적인 문맥에서는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더 자연스럽다(고영근·구본관, 2018:375). 이처럼 피동 표현의 형식에 따라서도 피동 표현을 달리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문항을 제작하였다.

#### <표Ⅲ-6> 과제③의 일부

- (가) 그는 그도 모르게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혔다.
- (나) 그는 그도 모르게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어졌다.
- 3-1. (가) 문장과 (나) 문장 중 한 문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두 표현의 의미나 기능에서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선택하세요.
- ① 두 문장의 의미나 기능이 완전히 같음.
- ② 두 문장의 의미나 기능이 거의 같음.
- ③ 두 문장의 의미나 기능 차이가 보통임.
- ④ 두 문장의 의미나 기능이 조금 차이 남.
- ⑤ 두 문장의 의미나 기능이 매우 차이 남.
- 3-2. (가) 문장과 (나) 문장 중 한 문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를 쓰세요.
- ① (가) 문장 선택, 선택 이유:
- ② (나) 문장 선택, 선택 이유:
- ③ 기타 선택, 다른 문장 사용과 그 이유:

# 3. 학습자의 피동 표현 의미ㆍ기능 파악 양상

본고에서는 탐구 과제의 문항들을 통해 수집한 학습자 자료에서 학습자가 피동 표현이나 능동 표현을 선택한 근거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하여, 학습자가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 양상을 유형화할 수 있었고, 각 유형별로 학습자의 구체적인 응답과 함께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 3.1.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 간의 비교

### 3.1.1. 피동 표현의 기본적 의미·기능에 관한 양상

### (1) 기본적인 의미·기능을 인식하지 못함

학습자 응답의 첫 번째 양상은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을 비교하였을 때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와 기능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경우였다.

【D-1】 다 똑같음.

【N-41】 같음. 문장만 다르게 한 거다.

【N-50】 두 문장은 완전히 같음.

위와 같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먼저 공통적으로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 똑같다고 응답하였으며, 능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이나 나타내는 의미가 똑같다는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어떤 표현을 선택하든 상관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학습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sup>20)</sup>. 문법 탐

<sup>20)</sup> 남가영(2008)을 참고하면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자들 역시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의 의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구 교육을 다룬 나상수(2021)의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언어 현상의 포착과 문제 확인에 실패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을 탐색하는 본 연구의 과제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들은 언어 현상과 탐구 대상에 대한 초점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아래와 같은 응답 양상을 아래와 같이 다른 문항에서도 반복하면서 전체적인 탐구 과정에 대한 동력을 상실하는 경향을 보였다.

【N-4】 두 개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상관없음.

【D-38】 다르게 쓸 이유가 없다.

남가영(2006)에서는 국어 지식 교육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적 경험이란 국어를 대상으로 탐색을 비롯한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으로, 이러한 교육적 경험은 국어 자체에 주목하고 의식하는 인지적인 과정에서출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피동 표현에 주목하고, 이들 표현이 갖는 의미·기능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유형에 학습자에 대한 교육적 처치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기본적인 의미·기능을 부적절하게 기술함

학습자 응답의 두 번째 유형은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기능의 차이 자체는 인지하였음에도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 미·기능을 부적절하게 기술한 유형이다.

학생 256명 중 53.9%의 학생(남가영, 2008: 86)이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의 의도가 동일하다고 응답함으로써, 표현 의도의 차이를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 【D-48】 (가) 문장은 철수를 강조하고 (나) 문장은 모기를 강조한다.
- 【D-18】 (가) 문장과 (나) 문장 모두 호랑이가 중심임.

학습자 D-48은 '모기가 철수를 물었다.'라는 문장에서는 철수가 강조되고, '철수가 모기에게 물렸다'는 문장에서는 모기가 강조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학습자 D-18은 능동 표현이든 피동 표현이든 '호랑이'가 '중심'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이들은 '강조'나 '중심'이라는 핵심어를 사용함으로써 탐구의 대상이되는 언어 현상에 대해 나름의 해석을 해내었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선 유형과는 달리 문장을 달리 표현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초점'에 대한 기능 자체를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앞의 유형에 비해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유형의 학습자는 피동 표현이 갖는 기본적인 의미와 기능을 적절하게 기술하지 못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적처치가 필요하며, 다음으로 살필 학습자들과도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 (3) 기본적인 의미·기능을 적절하게 설명함

학습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와 기능을 적절히 이끌어 내어 기술하는 데에 성공 한 경우로,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응답은 아래와 같다.

【N-8】 시점이 달라서 조금 다른 문장이다.

【N-70】 매우 다른 문장. 모기 입장에서 사람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위 부류의 학습자들의 응답에서는 나타나는 '시점'이나 '입장'과 같은 단어에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피동 표현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초점 화 기능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피 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와 기능을 이끌어내어 적절히 기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 【D-4】 (가) 문장은 호랑이를 강조하고 (나) 문장은 토끼를 강조한다.
- 【N-1】 (나) 문장에 비해 (가) 문장이 모기가 부각된 것 같다.

D-4와 N-1은 앞선 학습자 유형에 비해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와 기능을 더욱 명확히 기술한 사례에 해당한다. 초점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나 '부각'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앞 절에서 보인 바와 같이 과제①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장면의 초점에 대한 관찰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 과제에서는 활용하지 않은 그림을 활용하였다는 차이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의미와 기능에 대해 파악하는 답변도 확인할 수 있었다.

【D-3】 토끼가 크게 그려진 그림에는 (나) 표현이 더 정확하다.

학습자 D-3은 그림을 보고 토끼가 크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토끼를 강조하는 데에는 (나) 문장이, 즉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는 문장이더 정확하다거나 어울린다고 답변했다. 이는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이나타내는 의미가 똑같다거나, 그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습자부류로 하여금 전경과 배경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교수·학습의 상황에서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와 기능을 학습하는 단계에서 제공할수 있는 비계에 대해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과제①의 수행 결과를 통해서는 학습자가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와 기능을 적절하게 기술하는 학습자 양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비교적 단순한 조사 문항의 형식과 내용으로 인해 학습자의 응답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한 사고 구술이 불충분하여 의미·기능에 대한 설명이 다소 단편적이다. 반면 과제②는 과제①과 마찬가지로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비교하게 하고는 있으나, 의사소통 요인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밝히게 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통하여 학습자의응답에서 '분석'의 언어 활동 요소를 추가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3.1.2. 피동 표현의 파생적 의미·기능에 관한 양상

### (1) 파생적 의미·기능을 인식하지 못함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을 비교하여 하나의 표현을 선택하는 과제②에 서도 역시 피동 표현이 갖는 파생적인 의미와 기능을 분별하지 못한 학 습자 응답이 나타났다. 그러한 응답 부류를 실으면 다음과 같다.

- 【D-51】 (가)든 (나)든 별로 상관 없다.
- 【D-53】 어느 표현이나 뜻이 같기 때문입니다.
- 【D-23】 의미가 완전히 같아서 편한 대로 말하면 됨.

위의 학습자는 모두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비교하는 과제에서, 담화의 의미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둘 다 의미가 같다거나, 별로 상관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들은 피동 표현이나 능동 표현의 선택에 있어 어떠한 표현 의도나 효과를 인식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므로 인식 차원에서의 교육적 처치가 요구된다.

#### (2) 파생적 의미·기능을 부적절하게 기술함

한편 능동 표현과의 비교를 통해 피동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의 응답에서,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부적절하게 이끌어낸 경우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응답은 아래와 같다.

- 【D-11】 말하기 더 편해서.
- 【N-3】 발음하기 쉬워서.
- 【D-60】 더 표준어 같아서.

학습자 D-11과 N-3은 피동 표현을 선택하면서 말이나 발음을 하는데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들고 있고, D-60의 경우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비교하여 더 '표준어' 같다는 이유에서 피동 표현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답변들 역시 의사소통 요인을 고려하여 피동 표현이 갖는파생적인 의미와 기능을 파악한 것과 거리가 멀다.

덧붙여 이 유형에 해당하는 학습자 응답 중에는 능동 표현에서와 달리 피동 표현과 과거 시제를 연관 지어 선택의 이유를 서술한 사례가 여러 건 있어 특징적이다. 이는 기본적인 문법 요소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D-21] 이유는 '테이블이 안 닦였네요.'는 과거를 표현했다.
- 【N-38】 '밝혀졌다'의 느낌엔 과거의 의미로 말하는 것 같다.

## (3) 직관과 언어적 경험으로 의미·기능을 설명함

학습자들은 담화 수용자 요인을 고려하면서 피동 표현을 선택하는 경 우에 가장 직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해당하는 답변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N-27】 (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D-43】 (나)가 더 친절한 것 같아요.

학습자들은 N-27이나 D-43의 응답과 같이 피동 표현이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거나 더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기에 피동 표현을 선택했다고 응답하였다. 능동 표현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음을 토로하는 학습자의 응답도 같은 맥락에 해당한다.

【N-12】 (가)는 상대방이 불쾌할 것 같다.

[N-25] (가)는 꼰대같음.

【D-42】 (가)는 안 닦았다고 혼내는 듯한 느낌이 든다.

【D-32】 (가)는 뭐라하는 듯한 말투라서 안 된다.

이처럼 피동 표현의 '청자 배려하기' 기능은 다른 파생적인 기능에 비해 학습자의 언어적 직관에 의해서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화 유형과 연관 지어 피동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 응답에서도 명확하고 논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그 의미·기능을 설명한다기 보다는 직관이나 언어적 경험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D-52】 (나)가 어떤 기사나 신문에서 말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D-30】 뉴스에서 보통 그렇게 써서.

【N-29】 연구 결과를 말할 때 더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학습자 D-52는 피동 표현이 '기사나 신문'에서 '말해주는 느낌'이라고 응답하면서 피동 표현을 선택하였으며, 학습자 D-30과 N-29역시 '뉴스' 나 '연구 결과'에서 '보통', '자연스럽게' 피동 표현을 쓰기 때문이라고 응답하며 피동 표현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담화 유형 요인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직관과 언어적 경험에 주로 의존하였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이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담화 생산자 요인에 대한 고려에서도 직관을 동원하여 의미와 기능을 파악한 소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두 학습자는 자신의 언어 경험을 동원하여 피동 표현으로 쓰인 안내문이 더 '많이' 보인다거나 읽는 입장에서 더 '자연스럽다'고 서술하였다.

- 【N-61】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가 평소에 많이 보임.
- [N-22] 읽는 이의 입장에서 더 자연스럽다.

끝으로 능동 표현에 대해 서술한 사례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아래의 학습자들은 능동 표현이 '단호한 느낌'이라거나, 능동 표현에서 '압박'을 느낀다는 점을 통해 의미·기능을 설명함에 있어서 직관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N-19】 '제한 할 수 있습니다'는 서비스 제공자가 좀 더 단호한 느낌.
- 【D-35】 (가)는 더 압박을 가함.

## (4) 분석적 사고로 의미·기능을 설명함

전술하였듯 학습자들은 담화 수용자 요인을 고려할 때 모국어 화자의 직관을 동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아래 학습자의 응답에서처럼 분석적인 사고가 일부 드러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 [N-60] (가)는 나무라는 느낌이지만 (나)는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고서 조금은 더 느긋한 표현이라서 (나)를 골랐습니다.
- [N-63] (가)는 지목해서 당사자에게 따지듯이 말할 때니까, 돌려 서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학습자 N-60은 앞선 유형과 마찬가지로 능동 표현이 '나무라는 느낌' 이라고 표현하였으면서도, 이것이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피동 표현이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피동 표현을 선택하면서 평가를 내렸다는 구분 지점을 보인다. 학습자 N-63 역시 분석적 사고를 동원하여 능동 표현은 '당사자'를 '지목'한다고 설명하고, 피동표현은 '돌려서' '공손한' 표현이라고 명시하였다.

물론 능동 표현을 선택하면서도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여 설명한 사례도 있었다. 분석적 사고에서도 한 발짝 더 나아간 수준으로 도 볼 수 있는 학습자 N-54와의 사후 인터뷰 사례가 대표적이다.

(N-54) "(나)는 일부러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다. 어떻게 해달라는 주체를 말 안하니까. 그런데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다."

학습자 N-54는 행위 주체를 숨긴다는 피동 표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표현' 하는 능동 표현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답변 역시, 담화 수용자 요인을 고려한 피동 표현의 선택에서 분석적 사고를 동원한 경우로 분류된다.

담화 유형과 관련지어 분석적 사고를 동원한 사례는 몇몇 학습자의 사후 인터뷰의 과정을 통해서야 일부 파악되었다. 【D-26】 "~을 밝혔다'를 쓰면 밝힌 그 한 사람에 국한된다.
이 글에서도 좀 대중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밝혀졌다'를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말해야 더 진짜 같기도 하고."

위의 인터뷰에서처럼 학습자 D-26은 피동 표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답변하면서 능동 표현은 '한 사람에 국한'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보적·보고적인 특성을 띠는 담화 유형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얻어지는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높여주는 피동 표현의 파생적인 기능을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이 가장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동 표현의 파생적인 의미·기능은 '책임 회피'기능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경우에 학습자의 분석적 사고가 드러난 사례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안내문을 비롯한 일상 담화에서 피동 표현을 선택하면서 기능까지 정확히 파악한 대표적인 학습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N-68] "아무래도 내가 등장하지 않는 (나)처럼 말하면 나랑 관계없는 일이 되니까, 의도치 않은 일인 것처럼 말하고 싶어서 (나)를 선택했다."

학습자 N-68은 '의도치 않은 일', '관계없는 일'인 것처럼 말하기 위하여 피동 표현을 선택했다고 서술하였고, 이는 피동 표현에서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분석을 해낸 것이다. 즉, 분석적 사고를 중심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담화 생산자의 의도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 세부 유형으로 분류된 명확한 응답과는 별개로,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의 응답 수는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매우 적었다. 즉, 조사 결과 어떤 파생적인 의미·기능보다 책임 회피의 기능을 파악하기 어려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페어클로의 논의와 관련한 '비판적 언어 인식'의 관점에서 더욱 교육적으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곧 학습자들에게 피동 표현에 담긴 담화 생산자의 의도를 비판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언어적 민감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되고 있음을 일러주는 것이다.

### 3.2. 피동 표현 간의 비교

### (1) 의미·기능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함

과제③을 통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어 형식 요인을 초점화하지 못한 채, 형식이 다른 피동 표현 간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응답은 두 문장의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응답이었으며 문장 선택의 까닭도 이에 준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래 학습자의 응답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형식이 다른 피동 표현 사이에서 의미 차이를 전혀 변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 【D-1】 둘 다 똑같기 때문이다.
- [N-49] 그냥. 둘 다 의미가 같다.
- [N-16] 차이점이 없다.

피동 표현들 사이에서 한 표현을 선택할 때 학습자 N-13의 경우처럼 사용의 '빈도'를 기준으로 삼는다거나, 학습자 N-21과 같이 문장의 '길이' 나 '경제성'을 기준으로 피동 표현을 선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N-13】 표현하는 의미는 똑같지만 '긁혔다'를 더 자주 쓰기는 한다.
- 【N-21】 굳이 길게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응답 수와 응답 내용을 종합하면, 학습자들은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을 파악할 때 언어 형식 요인에 주목한 피동 표현의 선택, 즉, 형식이 다른 피동 표현 간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는 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위한탐구 활동과 비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2) 직관과 언어적 경험으로 의미·기능을 기술함

앞선 유형과 달리 형식이 다른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학습자의 경우에도, 오직 직관에만 의존하여 의미와 기능을 기술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N-59】 (나)는 어색해서.
- [N-12] '물건이 팔아진다'보다 '팔린다'를 더 많이 사용하고 '팔아진다'보다 자연스러우니까.

두 학습자는 각 문맥에 어울리는 언어 형식을 선택했음에도 그 이유 가 어떠한 분석이나 구체적 기술 없이 '어색해서', 혹은 '더 많이 사용'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등과 같이 학습자의 직관과 언어적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다.

# (3) 분석적 사고로 의미·기능을 설명함

언어 형식 요인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분석적 사고를 동원하여 피

동 표현의 의미·기능을 설명할 수 있었던 소수의 답변이 이 유형을 구성한다.

(N-38) '꺾어졌다'는 마치 누군가가 조종한 경우이지만, '꺾였다'는 꽃이 스스로 꺾인 걸 수도 있어서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N-6) '긁혔다'에 비해 '긁어졌다'는 자신의 의사대로를 표현하기 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습자 N-54는 언어 형식의 선택에 따른 '의도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적 사고를 거쳐, 오히려 능동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한 단계 더나아간 인식의 수준을 보이기도 하였다.

[N-54] 나뭇가지에 의해 긁혔다는 철수가 피해를 입는 그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은데, 등의 경우는 '철수는 팔이 길어서 등을 잘 긁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괜찮은 것 같다.

# 4. 학습자의 피동 표현 선택 과정 분석의 시사점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을 파악하고, 피동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양상에 대한 분석에서 얻은 시사점을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제시할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4.1. 피동 표현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

학습자들이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을 파악하는 양상을 분석한 결과, 피동 표현이 능동 표현과는 다른 관점과 해석을 나타내기 위해 유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학습자 부류와, 피동 표현이 행위 대상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학습자 부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는 그에 속하는 학습자들의 대표적인답변으로, 학습자 N-50이나 D-68의 경우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의 차이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속하고, 학습자 D-40이나 D-18의 경우 피동 표현의 강조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속한다.

- [N-50] 두 문장은 완전히 같음.
- 【D-68】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 【D-40】 (가) 문장과 (나) 문장 모두 강조와 상관이 없다.
- 【D-18】 (가) 문장과 (나) 문장 모두 호랑이를 강조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피동 표현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적 자원을 확보하게 하는 데 교육적 목적이 있기때문에, 학습자들이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 어떤 점에서 의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의미 차이가 어디에서 유발되는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인지 언어학에서의 '해석'의관점과 이론을 도입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담화 생산자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 능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교수·학습이이루어져야 한다.

#### 4.2.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에 대한 체계적 탐구의 필요성

다음으로 학습자들의 응답을 통해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되는 피동 표현의 파생적인 기능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거나, 형식이 다른 피동 표현이 지니는 미묘한 의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학습자 부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N-7】 둘 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게 들리기 때문에.
- 【D-60】 더 표준어 같아서.
- 【D-22】 둘 다 어색하지 않아서 상관없음.
- 【N-21】 굳이 길게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학습자 N-7은 피동 표현의 선택에 개입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 '듣는 사람'에게 '똑같게' 들린다고 응답하였고, 학습자 D-60은 등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판별하는 잘못된 기준을 세워 '표준어'에 가까운 정도로 등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 차이를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학습자 D-22의 경우, '둘 다 어색하지 않다'는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보다 적절한 문장을 선택하려는 시도에서 형식이 다른 피동 표현에서 오는 의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자 N-21은 형식이다른 피동 표현의 의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문장의 '길이'를 기준으로 표현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은 피동 표현을 선택할 때, 능동 표현과 대비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요인에 의해 비롯되는 피동 표현의 파생적인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나, 형식이 다른 피동 표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미 차이에 대한 탐구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학습자가 다양한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탐구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Ⅱ장에서 교수자 조사와 교과서 분석의 결과를 참고하면,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교과서 본문에서처럼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 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체계적인 탐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탐구 활동을 제시할 때에는 학습자들의 실제 언어 생활을 반영한, 생생한 언어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 4.3. 피동 표현을 활용한 담화 생산 교육 활동의 필요성

학습자가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을 파악하고 피동 표현을 선택하는 응답들을 살펴본 결과, 분석적 사고를 바탕으로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 을 설명할 수 있는 학습자 부류 역시 확인되었다.

- [N-6] '긁혔다'보다 '긁어졌다'는 자신의 의사대로 같다.
- [N-60] (가)는 나무라는 느낌이지만 (나)는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고서 조금은 더 느긋한 표현이라서 (나)를 골랐습니다.
- 【D-26】 '~을 밝혔다'는 밝힌 그 한 사람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말하려면 '밝혀졌다'를 쓰는 게 낫다.

학습자 N-6은 "자신의 의사대로"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피동사에 의한 피동 표현과 비교하여 '어지다' 형식에서 오는 '의도성'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또한 학습자 N-60은 행위 주체를 숨김으로써 담화 수용자를 배려하는 기능을 파악하였으며, 학습자 D-26 역시 담화 유형을고려하여 행위 주체를 숨김으로써 객관성을 높이는 기능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학습자들은 피동 표현에 주목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는 피동 표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어 지식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국어 사용 능력의 향상(민현식, 2002:95)이라 할 때,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서 그

청서는 안 된다.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은 피동 표현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피동 표현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피동 표현의 다양한의미와 기능을 담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까지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남가영(20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교육적 경험이란 학습자에게는 도전 가능한 형태이면서도, 학습자의 지식 세계를 흔들어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의 과제이다. 따라서 마지막 유형에 해당하는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피동 표현 교육 내용은 실제로 자신의 의도와 전략에 따라 피동 표현을 활용해보는 담화 생산의 경험일 것이다. 특히 II 장의 교과서 학습 활동 분석의 결과, 현재 피동 표현 교수·학습은 의미·기능 중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 활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강보선(2020)에서도 2015 교과서에서 피동 표현과 관련된 학습활동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학습활동이 '이해 중심'의 학습활동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21)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들에게 담화 생산의 국면에서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해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면, 기존의교수·학습을 성공적으로 보완하면서도, 문법 지식을 수행적 지식으로전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sup>21)</sup> 단적으로 2015 교과서에서는 담화 상황에 맞게 피동 표현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학습활동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2015 교육과정에서 담화 상황에 사용된 피동 표현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담화 상황에 맞게 피동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것을 강조한 것에 배치된다(강보선, 2020: 23).

### 4.4. 피동 표현 교육 내용의 위계화 가능성

'위계화'란 국어 지식의 학습 내용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배열하고 학습 내용도 난이도에 따라 조직하는 일(민현식, 2002:89)을 말한다. 민현식(2002)에서는 위계화의 고려 사항으로 '복잡성22)', '학습성', '교수성'을 제시하였는데, 피동 표현 교육 내용 역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즉, 현행 교과서에서는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제시하더라도 일부만을, 체계 없이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었으므로, 복잡성, 학습성, 교수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습성'은 학습자가 배우기 쉬운 것을 고려하는 원리로, 문법 교육의 맥락에서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요인이 학습자(남가영, 2012:4)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본 연구에서 피동 표현을 선택하는 학습자의 응답 내용과 수준을 통해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을 조직할 때의 시사점<sup>23</sup>)을 얻을 수 있었다.

응답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직관과 언어적 경험에 의존하여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피동 표현의 파생적인 의미·기능은 담화 수용자 요인을 고려한 '청자 배려하기' 기능이었다. 따라서 이 기능이 잘 드러나 는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기능에서 나아간 파생적인 의미와 기능에 대해 접근하게 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 다. 다음으로는 담화 유형을 고려한 피동 표현의 선택과 '책임 회피하기' 기능에 대해 적절한 비계와 함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 다. 학습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언어 형식을 고려한 피동 표현의 선택에

<sup>22) &#</sup>x27;복잡성'의 원리는 가네가 제시한 학습 위계의 원리(leargning hierarchy)와 도 같은 맥락이다. 가네는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교육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생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sup>23)</sup> 이는 남가영(2012)에서 제기한 물음인 '특정 내용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며, 응당 제기되어야 하는 '어떤 내용이 학습되기 쉬운가, 혹은 어려운가, 어떤 내용을 먼저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나중에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연속이기도 하다.

대해 다루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학습자의 약 3/4가량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학습자에게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학습 내용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을 고려한 피동 표현에 관한 내용은 학습을 심화하는 단계에서 다룰 수 있다는 등의 교육 내용의 설계과 조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Ⅳ. 의미·기능 중심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

## 1. 의미ㆍ기능 중심 피동 표현 교육의 목표

교육의 실제를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오현아(2010)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오현아(2010)에서는 '표현 문법(Expressive grammar)'의 개념을 제안하였는데,이는 언어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언어 사용의 구체적 양상 속에서, 학습자의 언어 생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능동적이고 생성적인 속성을 지닌 교육 문법의 한 유형을 일컫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문법 교육은 학습자의 문법 지식이 실제 언어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적 속성이 강화된 교육 문법이 되어야한다. 본 연구가 꾸리고자 하는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 역시 실제 언어생활에서 언어 주체로서 학습자가여러 가지 의사소통 요인을 고려하여 피동 표현을 전략적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담화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에까지 이르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Ⅱ장과 Ⅲ장에서 확인하였듯,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는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이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학습자들 역시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을 파악하여 선택·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유표적으로 사용되는 피동 표현을 인식하고, 그 의미·기능을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문법 능력과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의미·기능 중심 피동 표현교육 의목표를 단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IV-1>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목표

	학습자는 피동 표현이 유표적·의도적으로
	사용된 언어적 선택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의미·기능	학습자는 담화 이해의 국면에서 의사소통 요인을
중심의	고려하여 피동 표현에 담긴 의미와 기능을 파악
피동 표현	할 수 있다.
교육의 목표	학습자는 담화 생산의 국면에서 자신의 의도를
	전략적으로 표현하는 언어 자원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2. 의미·기능 중심 피동 표현 교육의 내용 구성

## 2.1. 피동 표현 교육의 내용 구성 방향

교육의 내용은 교육의 목표로부터 촉발되므로 본 항에서는 앞서 설정한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목표와, Ⅲ장에서 학습자가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을 파악하고 선택하는 양상을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을 토대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성하는 피동 표현 교육은 피동 표현에 주목하지 못하고, 다양한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할 수 없는 학습자가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을 인식하고 피동 표현을 부려 쓸수 있는 고급 모어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교육 내용을 '인식, 이해, 사용'의 세 차원으로 구성하여 재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식의 차원**: 의도적인 언어 선택으로서의 피동 표현을 인식한다.

둘째, 이해의 차원 : 담화 생산의 국면에서 피동 표현에 담긴

의미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사용의 차원 : 담화 생산의 국면에서 피동 표현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2. 피동 표현 교육의 내용 구성 틀

전술한 의미·기능 중심 피동 표현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한 결과, 본고에서는 Andrews의 언어 탐구와 인식(Language Exploration and Awareness: LEA)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여 의미·기능 중심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Andrews(2006)에서는 언어 탐구를 '언어에 대한 반성적 인식과 메타 언어적 인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일컬으며, 학습자가 수집한 언어 자료에 대한 사고 활동을 통해 언어와 언어의 의미 작용에 대한 메타 언어적 인식이 발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피동 표현과 피동 표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의미·기능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본고의 교육 목표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LEA식 탐구 활동 중 '의미'관련 탐구 활동들을 분석하여 이를모델로 삼아,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Andrews(2006)은 의미 탐구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총 29가지의 의미론 관련 탐구 활동을 제시하였는데, 이 활동들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어 다음과 같이 이들의 공통 특성을 추출(정지현·신희성, 2017:46)할 수 있었다. Andrews(2006)에서 제시한 LEA식 탐구 활동들의 구체적인 예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언어는 강력하므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한다.여러 전쟁동안에 잡지 광고에 쓰인 언어들을 살펴 물음에 답해 보자.
  - A. (WW I ) In times of war, in times of peace, use Parshall's Universal Flour.
  - B. (WWII) You've done your best, now do your bit.
  - C. (WWII) Admiral Halsey is counting on you.
  - D. (Iraq war) Keep America moving.
  - E. (Iraq war) Add your voice to the push for peace.
  - 이와 같은 슬로건을 보는 독자들은 어디에 사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 이와 같은 슬로건들이 주는 감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 <그림IV-1> LEA식 탐구 활동의 예시①

- ※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3~4개 선택해서 출연진들의 언어를 주의깊게 관찰하라. 출연자들이 말한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말했는지 써 보라.
  - 각 프로그램의 주요 시청자는 누구인가?
  -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적절한가?

#### <그림IV-2> LEA식 탐구 활동의 예시②

위와 같은 LEA식 탐구 활동들을 귀납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가 확인되었다. 첫째, LEA식 탐구 활동에서는 언어 자료를 제시하거나 학습자가 필요한 언어 자료를 직접 마련한다. 둘째, 수집한 언어 자료를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가 파생시키는 효과에 대해서 관찰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였던 언어와 언어의 의미·기능에 대해 메타적인 인식을 활성화하게 된다(정지현·신희성, 2017:46). 셋째, 관찰과 탐구를 바탕으로 학습이 목표로 하는 결론이나 결과를 도출해낸다.

#### 실제 세계의 언어 현상 수집 및 관찰

1

### 언어의 의미와 기능 인식

1

#### 주어진 과제 해결 및 결론 도출

<그림IV-3> Andrews(2006)에서 도출한 공통단계

이처럼 LEA식 탐구 활동에 기반한 교수·학습 모델에서는 실세계의 언어 현상을 관찰하기 위한 자료 수집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때 Andrews(2006)에서는 교과서와 워크북의 많은 문장들은 고립되어 있고 실제적 사용의 맥락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으며, 이는 일찍이 김광해(1997)에서 탐구 학습의 현장화를 위한 연구에서 '살아있는 언어 탐구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임규홍(2010)에서도 역시 탐구 학습을 통한 담화 문법의 교수에 대해 논의하며, 교수·학습 자료의 여러 성격 중 '실제 언어생활의 자료'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본고에서도 LEA식 탐구 활동의 모형을 적용하면서,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자료'라는 대원칙에 공감하며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 3. 의미·기능 중심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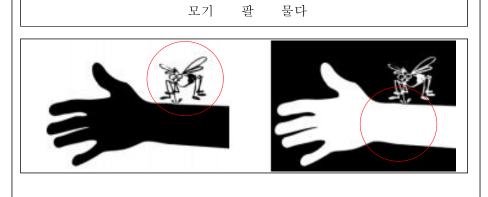
# 3.1. 인식 차원에서의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

인식 차원에서 피동 표현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들에게 피동 표현이

'상황에 대한 담화 생산자의 초점과 해석이 반영된 표현'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데에 있으므로, 전경과 배경 이론을 활용하여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 피동 표현은 상황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반영된 표현이다.활동을 통해 피동 표현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생각해 보자.

<활동1>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각 그림에 어울리는 적절한 문장을 만들고, 그 이유를 써 보자.



<그림IV-4> 인식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①

<활동1>은 학습자로 하여금 각각 '모기'와 '필'에 초점을 두어 문장을 만드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가 '모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모기가 팔을 물었다.", 혹은 "모기가 팔을 물고 있다."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었던 반면, '팔'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모기에게 팔을 물렸다." 라는, 피동 표현을 활용한 문장을 만드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언어 자원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활동1>을 통해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와 기능을 인식하게 했다면, 다음 <활동2>를 통해서는 피동 표현의 파생적 인 의미와 기능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 양상 분석에서 학습자들은 담화 생산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기능을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간단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예문으로 이와 같은 기능을 인식하게끔 하였다.



<그림IV-5> 인식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②

학습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피동 표현의 '책임회피하기' 기능을 인식한 것으로 보였다. <활동2>에 대한 실제 학습자들의 대표적인 응답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S-4】 꽃병이 떨어져서 깨졌어요. 내가 안 깼다고 말하고 싶다.
- 【S-5】 꽃병이 깨져버렸어요. 내가 깨긴 깼지만 이것도 거짓말은 아니기 때문.
- 【S-6】 꽃병을 깨게 됐어요.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서.

### 3.2. 이해 차원에서의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

앞선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피동 표현이 담화 생산자의 해석을 담고 있는 유표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본항에서 제시하는 이해 차원에서의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에 대한 활동은 언어 자료를 통해 피동 표현이 갖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아래는 피동 표현의 다양한 기능을 탐구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활동의 예시이다.

※ 담화에서 피동 표현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된다. 활동을 통해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을 파악해 보자.

<활동1> 제시된 문장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보자.

- ① (점원에게) "컵을 잘 안 **닦았네요**.
- → "컵이 잘 안 ( )."
- ② (손님에게) "카드를 소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포인트를 **적립 하지** 않습니다."
- → "카드를 소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포인트가 ( ) 않습니다."
- ③ 주식시장이 하락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 주식시장이 하락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 ) 있다.

<활동2> 능동 표현에서 피동 표현으로 바꾸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교하여 토의해 보자.

<그림IV-6> 이해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①-1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도록 구성된 활동에서는 먼저 <활동1>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능동 표현 대신에 유표적으로 쓸 수 있는 피동 표현을 인식하고, 피동 표현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활동2>에서는, <활동1>과 같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씀으로써 의도할 수 있는 의미나 기능의 차이, 곧 피동 표현의 효과나 담화 생산자의 의도를 토의를 통해 추론하도록 하였다.

활동의 정리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3>에서는 <활동2>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피동 표현의 사용과 그 효과를 의사소통 요인에 따라 정리하도록 할 수 있다. <활동3>에서 주어지는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 정리 체계는 <활동2>의 탐구, 토의를 이끌어주는 비계로도 활용될 수 있다.

<활동3>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피동 표현이 갖는 의미·기능을 정리해 보자.
①과 같이 피동 표현은 담화 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②와 같이 피동 표현은 담화 생산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③과 같이 피동 표현은 담화 목적과 담화 유형을 고려하여,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림IV-7> 이해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1)-2

위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능동 표현과 비교하여 담화 생산자와 담

화 수용자 요인, 그리고 담화 유형 요인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피동 표현을 인식하고, 선택에서 비롯된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탐구하고체계를 갖추어 정리할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습성과 교수성의 원리를 고려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과제는 언어 형식 요인, 즉 피동 표현 간에서 나타나는 의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제여야 한다. 학습활동과 답안의예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다양한 피동 표현은 그 형태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있다.활동을 통해 피동 표현 간의 의미 차이를 파악해 보자.

<활동4> 각 문장을 적절하게 만드는 피동 표현을 만들어보고, 설명해 보자.

굴뚝이 저절로 ①막히었다. / ②막아졌다. 굴뚝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①막히었다. / ②막아졌다.

<답안 예시> 비의도적인 문맥에서는 '막히었다'와 같은 피동사에 의한 피동 표현이, 의도적인 문맥에서는 '막아졌다'와 같은 '-어지다'에 의한 피동 표현이 더 적절하다.

<그림IV-8> 이해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②-1

학습자들은 <활동4>을 통해 형식이 다른 피동 표현 간에서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에 더욱 적합한 피동 표현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된다. 이때 위의 예시에서처럼 피동 표현의 선택항을 미리 제시해 줄 수도 있다. 학습자들이 언어 형식에 따른 피동 표현의 선택, 즉 형식이 다른 피동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는 데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Ⅲ장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끝으로는 탐구를 통해 생성한 가설이나 도출한 결론을 <활동5>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언어 형식 요인에 따른 피동 표현 간의 선택과 그 의미 및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활동5> 활동1의 결과를 참고하고, 아래 두 문장을 비교하여 구성이 다른 피동 표현에서 나타나는 의미 차이를 토의를 통해 정리해 보자.

오늘은 책이 잘 읽힌다. 오늘은 책이 잘 읽어진다.

<담안 예시> '-어 지다'를 포함하는 피동은 피동사에 의한 피동 표현과 달리 어떤 의도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읽힌다'에 비해 '읽어진다'가 책을 읽으려는 주어의 의도가 더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림IV-9> 이해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2)-2

이해 차원에서의 마지막 활동은 LEA식 학습에서 추출한 모형의 흐름과 같이 학습자들이 스스로 실세계에서 피동 표현을 탐구하고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익히고 나누는 프로젝트형 과제로 구성할 수있다. 학습 활동과 과제 수행의 예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활동6> 피동 표현이 사용된 담화를 직접 찾아 전사하거나 옮겨 써 보자.
- <활동7> 수집한 피동 표현에서 피동 표현이 사용된 이유나 그 기능을 짝과 함께 생각해 보자.
- <활동8> 수집한 피동 표현과 피동 표현에서 드러나는 의미· 기능을 모둠별로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그림IV-10> 이해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③

학생들은 가장 먼저 <활동6>과 같이 각자의 언어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피동 표현을 수집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피동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이를 포착하고 전사하거나 옮겨 적는 활동에서부터 LEA식 모형의 핵심을 구현하였다. <활동7>을 통해서는 수집한 피동 표현들을 토대로 피동표현에서 드러나는 기능이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개별활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활동 예시와 같이 짝 활동으로 구성하여 탐구의 깊이를 더할 수도 있다. 아래는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 실제로작성한 답안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어 <u>대책 마련이 요구된다.</u> 분양 상승세에 향후 공급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각에서 분양가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 여기에 신규 아파트가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에 따라 관심이 쏠린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에서 피동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와 같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때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대신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라는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행위의 주체를 특정 개인이 아닌 다수로 보이게 함에 따라 핵심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림IV-11> 이해 차원의 학습활동 적용 예시

마지막으로 <활동8>에서는 피동 표현을 탐구한 내용을 모둠별로 공유하고, 이를 종합하여 발표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내면화하고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언어 인식을 신장하도록 할 수 있다. LEA식 모형의 흐름과 의의를 살린 이러한 형태의 프로젝트형 과제는 교수자가 과정 중심의 평가로 활용할 수도 있어 교육 현장에서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 3.3. 사용 차원에서의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

사용 차원에서의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에 대한 활동은 피동 표현을 활용하면서 학습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 활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편지 텍스트를 생산해 보는 활동으로, 아래 예시와 같이 쓰기 전 단계, 쓰기 단계, 쓰고 난 후의 학습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피동 표현의 선택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포함한 편지글을 써 보자.

<활동1> 피동 표현의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떠올려보고, 편지글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해보자.

편지를 쓰는 목적	
편지를 받는 사람	
편지글의 주제	

<활동2> 피동 표현의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살려 피동 표현을 포함한 편지글을 완성해 보자.

<그림IV-12> 사용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①-1

앞선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의사소통 요인을 고려하여 의도적·전략적으로 피동 표현을 선택·사용할 수 있음을 상기하고, 편지글의 목적과 주제를 설정한다. 이를테면 학습자는 미안함을 전하기 위해편지를 쓸 때 의도가 아니었음을 표현하고,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피동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 건의하거나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편지글을 쓸 수 있고, 이 경우 문제 상황과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인상을 부여하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활동3> 편지에서 활용한 3	피동 표현에	대해 4	스스로	설명해	보자.
사용한 피동 표현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이유					

<그림IV-13> 사용 차원의 학습활동 예시①-2

이러한 텍스트 생산 활동에서는 피동 표현이라는 언어 표지를 초점화하기 위해 사용한 피동 표현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한다. 따라서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생산해보는 <활동2>를 마친 다음에는, <활동3>과 같이 자신이 활용한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정리하며 학습활동을 마무리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글을 쓰는 목적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피동 표현을 선택하고, 이를 포함하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활동 경험은 피동 표현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실제 텍스트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수행적인 지식으로 전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인식하고, 피동 표현을 선택하는 양상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들이 담화의 이해와 생산의 국면에서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살려 효과적 으로 피동 표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문법 요소는 간접적이고 미묘한 방식으로 담화 생산자의 의도를 드러내기에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의 장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피동 표현은 교육적 필요성이 높은 문법 요소로 꼽히고 있다. 피동 표현이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과 태도를 선택적으로 드러내는 문법 기제이면서, 다양한 담화 기능을 지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피동 표현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학습자의 문법 능력과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Ⅱ장에서는 먼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피동 표현 교육에서의 문제점과 피동 표현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의미ㆍ기능 중심의 피동표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동표현이 문법 교육 현장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태와 통사를 중심으로가르쳐온 문법 요소이다보니, 교과서나 실제 교수ㆍ학습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과거의 피동 표현 교육의 전통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인지 언어학 이론을 바탕으로 피동표현의 의미와 기능이 발현되는 기제를 살피고, 피동표현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의사소통 요인에 따라 정리하여, 이를 Ⅲ장과 Ⅳ장의 토대로삼았다.

Ⅲ장에서는 학습자 조사를 통해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Ⅱ장에서의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조사 문항을 제작 하여 중학교 학습자가 피동 표현을 선택하고,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을 파악하는 양상을 수집하였다. 과제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능동 표현과 비 교한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기능 파악', '의사소통 요인을 고려한 피동 표현의 파생적인 의미·기능 파악', '형식이 다른 피동 표현 간의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 차이 파악'양상을 파악하여 그 유형을 정리하 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1/3 가량이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와 기 능, 즉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행위 대상을 강조하는 기능을 인식하지 못 하거나, 부적절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들이 피동 표 현이 갖는 다양한 파생적인 의미·기능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거나 실패 하는 양상 역시 살펴볼 수 있었는데, 학습자들은 직관과 언어적 경험을 통해 담화 수용자 요인을 고려한 피동 표현의 '청자 배려하기' 기능은 비 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반면, 분석적 사고를 동원하여 담화 생산자 요인 을 고려한 '책임 회피하기' 기능을 포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 마지막으로 피동 표현 간의 비교에서는 학습자 응답의 3/4 가량이나 형식이 다른 피동 표현 간의 의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따라서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요인에 따 라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교육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피동 표현 교육 내용의 위계화 가능성도 살필 수 있었다.

IV장에서는 III장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목표를 인식, 이해, 사용의 차원으로 세워, '학습자는 피동 표현이 유표적·전략적으로 사용된 언어적 선택임을 인식한다.', '학습자는 담화 이해의 국면에서 의사소통 요인을 고려하여 피동 표현에 담긴 의미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학습자는 담화 생산의 국면에서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언어 자원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로 교수·학습의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다음으로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를 구안하기 위해서 Andrews의 LEA 접근법에서 교수·학습의 단계를 도출하였다. '실제 세계의 언어 현상 수집 및 관찰 →언어의 의미와 기능을 인식→주어진 과제 해결 및 결론 도출'이라는 단계에 따라 인식 차원, 이해 차원, 사용 차원의 학습 활동을 구성함으로써 LEA 접근법의 의의를 살리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은 학습자의 언어적 민감성을 신장시키며, 학습자의 언어적 자원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교육적 의의를 지니며, 의미·기능 중심의 피동 표현 교육의 실제를 보이기 위해 학습자가 피동 표현의 의미·기능을 파악하는 양상을 관찰하고 분석한 점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동 표현 교육 내용의 예시를 마련하고 적용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보선(2020), 피동 표현 교육의 내용 검토, 국어교육학연구 55, 7-35쪽.
- 강지영(2019), 귀추적 관점의 국어사 탐구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고영근 · 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고형진 외(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동아출판.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세종: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세종: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서울: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교육인적 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서울:교육인적자원부.
- 구본관(2008), 문법 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선청어문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749-779쪽.
- 구본관(2009), 패러다임의 변화와 문법 교육의 방향, 어문학 103, 한국어 문학회, 1-40쪽.
- 구본관(2016), 문법 연구의 변화와 문법 교육의 변화, 국어교육연구 3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7-254쪽.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 집 문당.
- 구본관·신명선(2011),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 국어교육연구 27, 서울대 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261-297쪽.
- 김광해(1992), 문법과 탐구학습, 선청어문 2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81-101쪽.
- 김광해(1997), 국어지식교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규훈(2014), 국어교육의 교과교육학적 위상과 문법교육 핵심 역량

- 시대 문법교육의 역할-,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 문법교육학회, 117-132쪽.
- 김동환 외(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교학사.
- 김범진(2019),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김병건(2016), 어휘적 피동의 담화 기능 연구, 한말연구 42, 한말연구학회, 5-27쪽.
- 김석우 외(2015), 교육연구방법론, 학지사.
- 김슬기(2016),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 발견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김용(2008),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교수방안, 서울여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경(2012), 피동 구문의 요건과 의미 자질, 우리어문연구 42, 우리어문 학회, 91-120쪽.
- 김윤신(2017), 국어 문법 교육에서의 피동에 관한 국어학적 고찰, 한글 318, 147-168쪽.
- 김은성(2006), 국어 문법 태도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는 문.
- 김자영(2014), 문장 종결 표현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2014), 맥락 중심의 시간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는 문.
- 김중수(2015), '잊혀진 계절'의 문법성과 교육적 함의, 국어교육학연구 50, 173-204쪽.
- 나상수(2021), 문법 탐구에서의 가설 생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남가영(2006), 국어 인식 활동의 경험적 속성,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337-373쪽.
- 남가영(2008), 문법 탐구 경험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남가영(2009), 문법지식의 응용화 방향 - 신문텍스트에 나타난 '-(다)는 것이다' 구문의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형태론 11, 형태론 학회, 313-334쪽.

남가영(2012). 문법교육과 교과서, 한국어학 57. 한국어학회, 1-34쪽.

남경영(2019), 한국어 피동표현의 담화기능 교육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수경(2007), 한국어 피동문의 문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남수경(2011), 한국어 피동문 연구, 월인.

남지애(2018), 문법 탐구 공동체의 학습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노유경(2016), 완화적 표현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수열 외(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금성출판사.

민현식(2002), 국어 지식의 위계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 108, 한국어교육 학회, 71-129쪽.

민현식 외(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좋은책신사고.

박민신(2019), 한국어 피동 표현의 교수학적 변환 양상 연구, 언어와 문화 15,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19-143쪽.

박안수 외(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비상.

박영목 외(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천재교육.

박영민 외(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비상.

사마와디(2011), 태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민정(2018), 한국어 피동표현의 기능과 사용 양상 변화, 한국민족문화 6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23쪽.

서정수(1996), 현대 국어 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원.

송현정(1994), 국어 피동 담화 특성 연구, 선청어문 22,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과, 303-334쪽.

신명선(2004), 국어 사고도구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신명선(2007), 문법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에 관한 연구, 국어

- 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423-458쪽.
- 신명선(2010), 인지 의미론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문법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어 의미학 31, 한국어의미학회, 77-107쪽.
- 신명선(2013), 언어적 주체 형성을 위한 문법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43, 한국어교육학회, 83-120쪽.
- 신명선·박재영(2004), 신문 기사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미디어연구소. 신유식 외(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미래엔.
- 연주형(2019), 국어 피동 표현의 교육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아(2010), 표현 문법 관점의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인혜(1997), 우리말 피동 연구, 한국문화사.
- 윤현애(2011), 구어 장르 구분을 기반한 한국어 피동 표현의 담화 기능 연구,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문법교육학회, 106-115쪽.
- 윤현애(2011), 한국어 피동 표현의 담화 기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관규 외(2021), 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관희(2015), 학습자의 지식 구성 분석을 통한 문법 교육 내용의 조직과 표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삼형 외(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지학사.
- 이성영 외(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천재교육.
- 이수나(2018),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표현의 담화·화용적 지도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택(2004), 현대 국어 피동 연구, 박이정.
- 이향천(1991), 피동의 의미와 기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진(2002), 한국어 피동 표현의 교수 내용 및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진(2007), 규범적 국어 인식 능력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효숙(2004). 한국어 교육에서 효율적인 피동 교수 방안 한일 대조 분석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룡(2014). 문법 교육의 인지 언어학적 탐색, 태학사.
- 임지룡(2017), 인지의미론, 한국문화사.
- 임지룡(2018), 한국어 의미론, 한국문화사.
- 윈시투흐엉(2008), 한국어와 베트남어 피동법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정민 외(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해냄에듀.
- 정병철(2016), 동기화에 기초한 피동 표현의 교육 내용 연구, 청람어문교 육 57, 청람어문학회, 135-179쪽.
- 정지현·신희성(2017), 탐구 학습 현장화를 위한 대안적 탐구 활동 설계 연구, 한국어문교육 22,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41-63 쪽.
- 제민경(2015), 장르 문법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진수(2013), 텍스트 맥락 기반의 문장 확대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의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천경록(1995), 기능, 전략, 능력의 개념 비교, 청람어문교육 13, 청람어문 학회.
- 최원식(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창비.
- 최지영(2010), 전경·배경 원리와 구조적 도상성, 독어학 22, 한국독어학 회, pp.
- 최혜진(2021), 고등학교 학습자의 오개념 분석을 통한 한글 맞춤법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연실(2010), 실제 언어 생활 중심 문법 탐구 학습, 교사교육연구 49, 부 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9-47쪽.
- 한가연(2015), 텍스트 기반 피동 표현 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rews, L.(2006), Language exploration and awareness: A resource book for teachers, 이관규 외 역(2008), 국어 수업을 위한 언어 탐구와 인식, 박이정.
- Dewey, J.(1938). Experience and Eduation. 엄태동 편저(2001),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 원미사.
- Flick, U.(2002),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임은미·최금 진·최인호·허문경·홍경화(2009), 질적 연구방법, 한울 아카데 미.
- Gagne, R. M. (1965), The Conditions of Learning. New York: Holt, Rinehart&Winston.
- Pattion, M. Q. (2015). Qualitativ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김진호 외 역(2017), 질적 연구 및 평가 방법론, 교육과학사.
- Smirnova, E. & Mortelmans, T.(2010), Funktionale Grammatik: Konzepte und Theorien, De Gruyer, 최지영 역(2015), 기능 문법의 개념과 이론, 한국문화사.
- Ungerer, F. & Schmid, H.(199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gman, 김동환·임지룡 역(2010), 인지언어학 개론, 태학사

## **Abstract**

## A Study on the Passive Expression Education Centered on Meaning and Function

Lee Yujin

Grammar education should help learners grow into language subjects who can sensitively recognize language expressions and utilize language resoursces that can effectively convey the meaning and intentions they want to express. Since the grammar element reveals the intention of the discourse producer in an indirect and subtle way,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is in grammar education for native speakers.

In many grammar elements, passive expression is considered a particularly necessary grammar element because of its various discourse functions. However, passive expression,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curriculum, has been taught mainly in forms and rules by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Starting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is proposing passive

expression education centered on meaning and function which could increase actual communication ability.

For this purpose, chapter II examined the mechanism by which the function and meaning of passive expression is expressed based on cognitive linguistics theory, and summarized the function and meaning of passive expression according to communication factors. Also,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were analy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eachers to examine the problems of current passive expression education and the direction in which passive expression education should proceed. Based on thisn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education on passive expression centered on meaning and function was secured.

In chapter III, as preliminary work to prepare the contents of passive expression education, inquiry tasks were set up to examine the aspects of students selecting and understanding passive expressions. According to the survey and analysis results, there were answers that did not recognize the basic meaning and function of passive expression and answers the succeeded or failed to grasp various derivative meaning and functions of passive expression could also be examined.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more than half of the learners did not grasp the difference in meaning between different types of passive expressions, suggest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ed educational content to recognize and explore the meaning and function of passive expression.

In chapter IV, based on the discussion up to chapter III, this study establishes the aim of a passive expression education centered on meaning and function and presented the direction and the actual structure of the educational contents derived from the LEA model.

This paper proposed passive expression education centered on

meaning and function as the content of grammar education tha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by using the knowledge of passive expression strategically in the phase of text understanding and produc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observed and analyzed learners' perceptions of passive expressions through empirical research and organized contents of passive expression education that can be used in actual teaching and learning fields.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mmar Education,

Passive Expression

*Student Number* : 2019-21109